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8. **1** Vol. 193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 2008년 신년설계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선달 그림과 정월 초하루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미국의 할리데이시즌





謹賀新年

2008년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부산시민의
문화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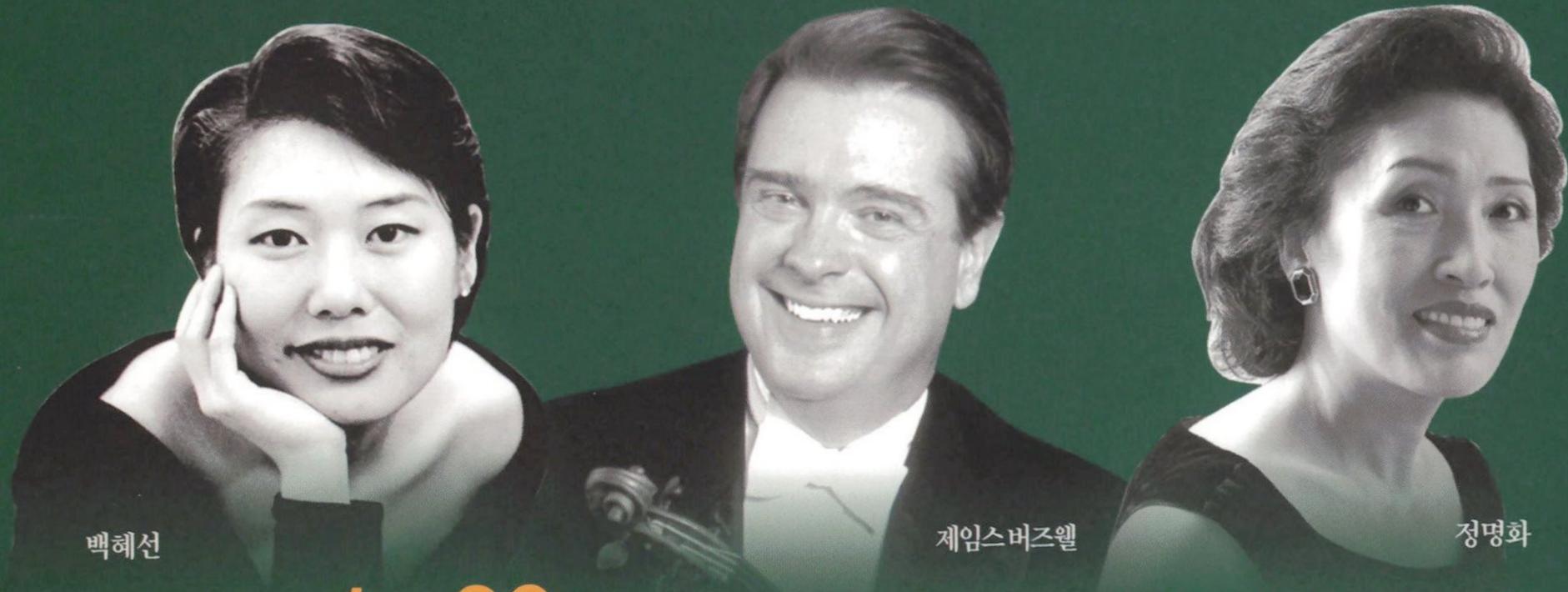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문화회관이 우리 사람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주는 어울림의 한마당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둥근 원형에 주황의 활력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였으며 중앙에 20이라는 숫자를 파랑과 흰색으로 배색하여 개관 20주년임을 알리고 전체적으로 21세기 부산문화 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부산문화회관의 이상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백혜선

제임스 버즈웰

정명화

2008년 1월 26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f. 백혜선 Vn. 제임스 버즈웰 Vc. 정명화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Pf. 클라우디오 M 메너 Sop. 김경희, 정수임 Mezzo. 이민정 Ten. 양승엽. Bass. 하병욱
하모니합창단, 교사합창단 (합창지도/김강규)

베토벤 코랄 환타지

Vc. 윌리엄 드 로자

하이든 첼로협주곡

지휘/ 오충근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 주 최 부산일보사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부산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 협 찬 법무법인 국제 CHRISTOPHE LANDON RARE VIOLINS, INC.
-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시립예술단회원 10%할인)
-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 음악회문의 및 전화예약 051-747-1536 www.busanarts.com



희망찬 새해를 맞아 사랑하는 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도니젯띠 작곡

오페라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 ▶ 오케스트라
- ▶ 합창
- ▶ 무용
- ▶ 피아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임병원)
 부산오페라합창단
 이화발레앙상블
 김효성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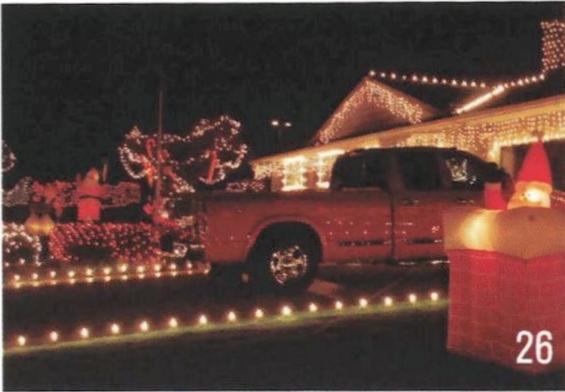
2008년 1월 17일(목) ~ 1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주최 / 미래와음악 유라시아오페라단
-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국제신문 여성신문
- ▶ 공연문의 / 051)242-5231, 018-567-2231, 010-2576-7214
- ▶ 입장권 / VIP석 100,000 / R석 70,000 / S석 50,000 / A석 30,000 / B석 20,00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전화예매 시 10% 할인
 * 4인 가족석 구입시 1매 무료제공(3인+1인) - 중복할인 안됨 * 10매 이상 단체구입시 법인카드 방문결제 -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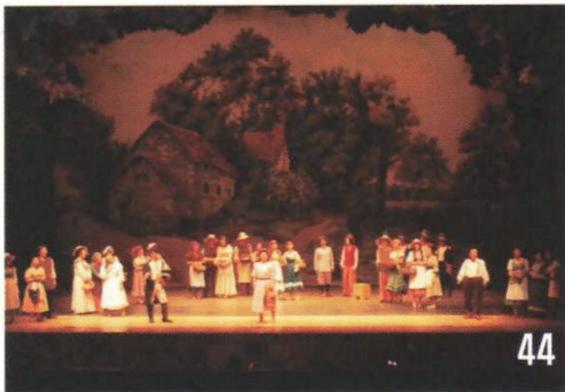
▶ 지정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 인터넷 예매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문의: 1544-155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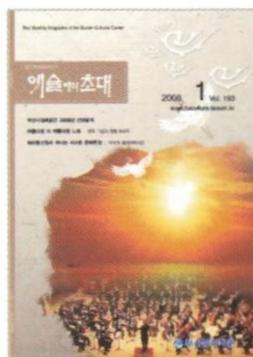


38



44

- 08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 일정
- 10 신년사 | 새해 첫마음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기원 · 허남식
- 12 신년시 | 戊子年 새해에 · 오정환
- 14 부산시립예술단 2008년 신년 설계
- 22 부산시립예술단 2008년 주요 공연
- 2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미국의 할리데이 시즌 · 김현숙
- 30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선달 그림과 정월 초하루 · 김상훈
- 32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판화예술이야기
| 파리의 영원한 문화아이콘, 로트렉 · 채경혜
- 34 그곳에 가면 | 이주홍 문학관
- 36 우리는 문화가족 | 컬쳐마당
- 38 공연화제 | 2008 부산국제음악제
- 40 쉽게 듣는 클래식 | 인상주의 음악 · 곽근수
- 41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1월 프로그램 가이드
- 60 세계의 뮤지컬 | 레미제라블 · 이상훈
- 61 새로 나온책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6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 68 100자 토크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인 박원철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12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아온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2008년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

월 공연일정

전시실

인체의 신비 부산전 - 대전시실

1월 4일(금)~2월 24일(일)

- 관람시간 : 오전 9:30~오후 8:30
- 입장료 :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원
유아(36개월 이상) 5,000원

문의 Y MIX엔터테인먼트(757-9876, 016-623-011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58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tue	
2	wed	
3	thu	
4	fri	
5	sat	
6	sun	
7	mon	
8	tue	
9	wed	
10	thu	신년축하 성가의 밤 19:30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635-4728, 016-9317-4728)
11	fri	
12	sat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한화와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희망의 노래' 18:00 초대/김희철(02-2662-1803, 010-3003-1803)
13	sun	
14	mon	
15	tue	
16	wed	
17	thu	 오페라로 시작하는 새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미래와음악 (242-5231)
18	fri	 오페라로 시작하는 새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미래와음악 (242-5231)
19	sat	 오페라로 시작하는 새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미래와음악 (242-5231)
20	sun	
21	mon	
22	tue	
23	wed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전통의 가·무·악 3색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4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8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5	fri	
26	sat	 2008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7	sun	
28	mon	
29	tue	
30	wed	 2008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 콘서트'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31	thu	제 1081회 MBC 목요일음악회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19:30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011-556-7308)

중극장

MEDIUM THEATER

- 1 tue
- 2 wed
- 3 thu
- 4 fri
- 5 sat
- 6 sun
- 7 mon
- 8 tue
- 9 wed
- 10 thu
- 11 fri
- 12 sat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B-로봇 가브타크' 12:00, 14:00, 16:00
1만5천원 ·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 13 sun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B-로봇 가브타크' 12:00, 14:00, 16:00
1만5천원 ·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 14 mon
- 15 tue
- 16 wed
- 17 thu
- 18 fri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011-597-6808)
- 19 sat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 신년음악회 19:30
초대/김경순(918-1210, 018-553-7855)
- 20 sun
- 21 mon
- 22 tue 유U;콘서트 신년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초청특별 연주회' 11:00 균일 1만 5천원/국제신문사(500-5223)
- 23 wed 2008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 19:3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4 thu
- 25 fri 2008 부산국제음악제 '제롬 로즈 피아노독주회' 19:3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6 sat 제 6회 에코플룻과이어 정기연주회 18:00
초대/조진학(637-2178, 017-592-8868)
- 27 sun 2008 부산국제음악제 '이유라 바이올린 독주회' 16:0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8 mon 제 19회 재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19:30
초대/황경재(322-0056, 017-541-3445)
- 29 tue 2008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김규연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30 wed 김정강 귀국 피아노독주회 19:30
초대/김정강(010-8794-3639)
- 31 thu

소극장

SMALL THEATER

- 1 tue
- 2 wed
- 3 thu
- 4 fri
- 5 sat
- 6 sun
- 7 mon
- 8 tue
- 9 wed 한주연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한주연(016-860-1059)
- 10 thu
- 11 fri 에코 주니어 플룻앙상블 연주회 19:00
무료/조진학(017-592-8868)
- 12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3 sun
- 14 mon
- 15 tue
- 16 wed
- 17 thu
- 18 fri
- 19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5중주 'G-스트링'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0 sun
- 21 mon
- 22 tue
- 23 wed 부산시립무용단 2008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4 thu 부산시립무용단 2008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5 fri
- 26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7 sun
- 28 mon 김병현 기타 독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이판식(016-437-8483)
- 29 tue
- 30 wed
- 31 thu 예전음악회 18:30
무료/예전(010-4568-1054)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①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tue	
2	wed	
3	thu	
4	fri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시민회관(630-5200)
5	sat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6:00, 19:00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시민회관(630-5200)
6	sun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6:00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시민회관(630-5200)
7	mon	월요일영화 '베어울프'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8	tue	
9	wed	
10	thu	
11	fri	
12	sat	
13	sun	
14	mon	월요일영화 '식객'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5	tue	
16	wed	
17	thu	
18	fri	
19	sat	뮤지컬 '명성황후' 15:00, 19:00 -대극장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주)Knp(1599-8879)
20	sun	뮤지컬 '명성황후' 14:00, 18:00 -대극장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주)Knp(1599-8879)
21	mon	월요일영화 '어거스트 러쉬'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2	tue	
23	wed	
24	thu	어린이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5	fri	어린이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6	sat	어린이 캐츠 12:00, 14:00, 16:00 -대극장 나온컨텐츠미디어(1544-1263) 어린이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12:00, 14:00, 16:00 -소극장
27	sun	어린이 캐츠 11:00, 15:00 -대극장 나온컨텐츠미디어(1544-1263) 어린이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13:00, 15:00 -소극장
28	mon	월요일영화 '색계'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310키보드아카데미 정기연주회 20:00 -소극장 키보드아카데미(918-3187)
29	tue	
30	wed	
31	thu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tue	
2	wed	금정수요음악회 '신년음악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3	thu	
4	fri	
5	sat	어린이 뮤지컬 '보글보글 스폰지밥'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 2천원/즐거찾기(1544-9135)
6	sun	어린이 뮤지컬 '보글보글 스폰지밥'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 2천원/즐거찾기(1544-9135)
7	mon	
8	tue	Happy Music School 19:30 -대공연장 초대/캐주얼클래식(02-515-0720)
9	wed	금정수요음악회 '실내악과 함께하는 신년의 선율'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10	thu	소프라노 민수연 귀국독창회 19:30 -소공연장 초대/민수연(010-8448-8358)
11	fri	
12	sat	어린이뮤지컬 '개구장이 짱구' 12:00, 14:00, 16:00 -대공연장 4인음악회 19:30 -소공연장 초대/강봉현(010-9919-6360)
13	sun	어린이뮤지컬 '개구장이 짱구'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 1천원/극단 대추(805-5355)
14	mon	비루투오조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의 밤 19:30 -대공연장 초대/임은혜(248-5692)
15	tue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제 17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517-8241)
16	wed	금정수요음악회 '바리톤 배철웅 귀국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17	thu	
18	fri	
19	sat	영어뮤지컬 '열두 동물 이야기' 13:00, 16: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유니복스(02-560-0999)
20	sun	영어뮤지컬 '열두 동물 이야기' 13:00, 16: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유니복스(02-560-0999)
21	mon	2008 부산영뮤직페스티벌 19:00 -대공연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582-9143)
22	tue	2008 부산영뮤직페스티벌 19:00 -대공연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582-9143)
23	wed	2008 부산영뮤직페스티벌 19:00 -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24	thu	
25	fri	가족뮤지컬 '피터팬' 11:00, 15:00 -소공연장 균일 1만 2천원/dubu기획(02-2654-6854)
26	sat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12:00, 14:00, 16:00 -대공연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2) 뮤지컬 '피터팬' 11:00, 15:00 -소공연장 dubu기획(02-2654-6854)
27	sun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13:00, 15:00 -대공연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2) 뮤지컬 '피터팬' 12:00, 14:00, 16:00 -소공연장
28	mon	가온트리오의 밤 19:30 -소공연장 균일 5천원/손은혜(016-858-2942)
29	tue	
30	wed	고지형 1st Ballet Festival 19:30 -대공연장 고지형(016-635-0712)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31	thu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새우리음악회 19:00 -대공연장 새우리신경외과(513-9999) 파르렛 퀸즈 with 피아니스트 19:30 -소공연장 탁서연(011-9667-0782)

해운대문화회관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	tue	
2	wed	
3	thu	
4	fri	
5	sat	
6	sun	
7	mon	
8	tue	
9	wed	
10	thu	
11	fri	
12	sat	가족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 2천원/극단 즐겨찾기(1544-1718)
13	sun	가족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 2천원/극단 즐겨찾기(1544-1718)
14	mon	
15	tue	
16	wed	
17	thu	
18	fri	
19	sat	
20	sun	
21	mon	
22	tue	
23	wed	
24	thu	부산바로크음악축제 '김성현 바로크 바이올린 독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김성현(011-595-6060)
25	fri	부산바로크음악축제 '조진희 리코더 독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김성현(011-595-6060)
26	sat	
27	sun	우창수 1집 음반 '빵과 서커스' 발매 기념 콘서트 18:00 -대공연장 1만5천원, 1만원/우창수(016-483-7018)
28	mon	
29	tue	
30	wed	
31	thu	

부산문화회관

1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2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집박/유경조 · 소금/한영길 · 대금/강영진, 이만형, 강은주 · 해금/성기만, 조남순, 정수경 외)
- 거문고 중주 '출강' (거문고/박용란, 엄애리, 박하혜, 전해정)
- 해금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해금/하지행 · 장구/신문범)
-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경수 · 해금/김민정 · 아쟁/권혜정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 사물놀이(뽕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정학수 · 북/신문범)
- ※ 해설/백규진

● 1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5중주 'G-스트링' 연주회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연주자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5중주 'G-스트링'은 고음 악기인 바이올린에서의 가장 저음인 G음과 저음악기로 편안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젓가락 행진곡
- 로시니/소나타 제3번 다장조
- 슈트라우스/왈츠 '비엔나 기질' 작품 354
- 브리튼/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플 심포니 작품 4

※출연

Vn/박연정, Vn/신민정, Va/황보민정, Vc/전지윤, Db/이호영

● 2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 처용무(춤/이성원, 김병주, 이정식, 박상용, 이창규)
- 멋든춤(춤/김주령)
- 살풀이춤(춤/오숙례)
- 중국무용 '신년(新年)' (특별출연/라원원)
- 성주허튼춤(춤/이화성, 이현주, 전해련)
- 소고춤(춤/정진희)
- 화중신선(출연/김공주, 정수민, 이현정, 오수연, 김경미)
- ※ 안무/홍기태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새해 첫 마음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기원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은 인간과 가장 인연이 깊은 쥐띠의 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예지력과 다산을 상징하는 부지런한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새해에는 부산 곳곳에서 쥐의 부지런함과 예지력이 넘쳐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등 많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시민여러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을 성원해주시고 공연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부산은 동북아 제일의 문화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부산시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영상후반 작업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으로 많은 영화들이 부산에서 촬영되고 있고 부산의 다양한 모습이 스크린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부산만의 특색 있는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은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고 아울러 부산박물관이 개관 30주년, 부산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 2008년에는 우리의 정신적 보고가 될 국립국악원이 부산에 개원합니다. 수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지만 부산문화진흥을 위한 중요한 해인만큼 개관 당시 가졌던 첫 마음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부산 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은 2008년 개관 20주년을 계기로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에는 지난 20년간 우리 부산의 문화 텃밭을 가꾼 많은 예술가들의 열정, 땀방울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에 즈음해 부산시립예술단도 2008년 새해 여러분들의 감성을 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문화의 주인은 부산시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없다면 '동북아 제일의 문화 관광도시 부산'은 만들 수 없습니다. 부산의 많은 문화 현장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부산과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08년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 시민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장

허능식

戊子年 새 아침

오정환 · 시인

다시 시작하는 십이 년
열두 영물 십이지신의 첫 해
무자년 새 아침이 밝아 온다
예로부터 다산과 다복을 의미하는
쥐띠 해 2008년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미 어제의, 지난 십이 년의 하늘이 아니다
무한한 꿈과 가능성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
새 희망과 오롯한 결실의 2020년을 겨냥하는
저 맑고 빛나는 새 하늘을 보아라

어두운 구름과 안개 속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의 번뇌 그 얼마였나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던
문화 예술의 소망과 보람이 이제 비로소
햇살에 반짝이는 수많은 나뭇잎처럼
금빛 찬연한 물결의 이랑처럼 빛나는

2008

저 푸르른 하늘을 보아라
논두렁 밭두렁에 타오르는 쥐불놀이
모든 횡액과 재앙을 불사르고
풍성한 새해의 풍년을 기약하는 사람들의
굳은 결의와 신념의 웃음을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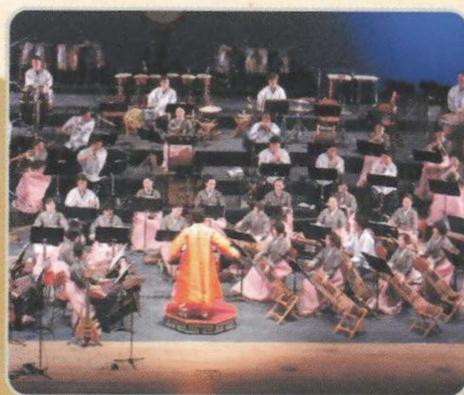
오로지 영민함과 부지런함으로 일관하는
십이지신 첫 상징 쥐의 해를 맞아 우리들
손끝 발끝 날카로운 눈빛으로 빛어내고
온몸으로 이룩해 내는 아름다운 선율 율동
조형 그리고 무한한 심상과 형상들
다시 십이 년을 기약하는 무자년 새 아침
2008년 바라보면서 2020년을 기약하자

■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난 오정환시인은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었다. 시집으로 '맹아학교' '물방울노래'가 있다. 부산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오정환 시인은 현재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戊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더욱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선사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환희를 담은 '2007 제야음악회'로 특별한 신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08년 1월 24일 객원지휘자 크리스티안 슐츠가 지휘하는 신년음악회로 바쁜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08년 11회의 정기공연과 5회의 특별공연, 5회의 특별기획 공연,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에는 특별기획 공연 프로그램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를 을숙도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에서도 두차례 기획, 시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3월 13일 오전 11시, 찾아가는 웰빙콘서트 그 첫 무대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할 객원지휘자로는 전 수석지휘자 곽승을 비롯해 클래식은 내친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 코리안심포니 지휘자 박은성 등이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3월 7일 새봄과 함께 오랜만에 부산을 찾게 될 박은성 지휘자는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명곡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외에도 2007년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큰 호응을 받았던 중국의 젊은 지휘자 리 신차오가 11월 27일 정기연주회에서 다시 부산을 찾는다.

2008년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영·호남권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영·호남권 교향악단페스티벌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새롭게 열린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4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08교향악축제'에 이어 4월 23일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제 1회 영·호남권 교향악단페스티벌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그외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08년 이론강의와 음악회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민클래식 교실'을 새롭게 신설한다. 1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 진행될 시민클래식교실은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부산문화대학에서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은 이동신 지휘자가 '음악감상의 시작: 멜로디의 비밀'을 시작으로 '음악에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변주곡', '음악형식의 완성: 소나타 형식' 등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2007년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처음 시작한 '로비 콘서트'와 이동신 지휘자의 '클래식 따라잡기'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우리의 멋과 흥을 음악으로 표현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세계민족음악페스티벌 개최-



꾸준히 교류를 가져온 중국의 광파민족악단의 초청으로 10월 29일 북경연주회를 가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7년에도 바쁜 연주일정을 소화해냈다. 12월에는 송년음악회에 앞서 14일 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오성)가 마련한 '나라음악큰잔치'에 참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11일부터 15까지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열린 나라음악큰잔치는 한국 음악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국악축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 KBS국악관현악단, 전주시립국악단, 대구시립국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 5개 국악 관현악단이 참여했다.

“2007년은 풍물과 비보이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북경연주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이 우리 음악을 들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는 박호성 지휘자는 2007년 한해 우리음악이 나아갈 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다.

박호성 지휘자는 2007년 '비보이와 함께하는 한류콘서트-통(通)'을 시작으로 립스틱 콘서트, 효콘서트, 토크 음악회, 환경음악회 '상생',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등으로 국악관현악단 공연을 브랜드화시켰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새해 첫 무대는 1월 23일 전통음악으로 연다. 유경조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될 신년음악회는 전통음악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가, 무, 악 3색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3월에는 2007년 시작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2008년 첫 무대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열게 된다. 2008년 첫무대인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협연자들과 함께 봄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가장 중점을 두는 행사는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와 아울러 부산문화회관 개관 기념으로 새롭게 기획한 세계민족음악페스티벌이다. 2008년에는 그동안 가을에 개최한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를 일정을 당겨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열고 9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세계민족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중국의 광파민족악단을 비롯해 부산의 자매 도시 연주단을 대상으로 참가연주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8년부터 금정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찾아가서 연주, 부산국악애호가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합창 음악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다양한 기획무대 선사

2007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 합창단 최초로 바티칸 공식미사 연주로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합창단은 2007년 뜻깊은 활동을 되돌아보며 2008년 새해를 맞는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수석지휘자겸 예술감독 김강규와 함께 2월 19일 특별연주회를 시작으로 2008년 4회의 정기연주회와 4회의 특별연주회,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합창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름다운 다성음악의 세계' (4월), 하이든의 '전시미사' (6월), 러시아 지휘자 비아체슬라브 빠디엘스키 초청연주회(9월),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캐롤나라' (12월)로 무대를 구성했다.



합창에 대해 생소한 청중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연주회에서는 사랑에 관한 테마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사랑 1' (2월), 대중가요에 합창이라는 클래식의 옷을 입힌 7080 네 번째 무대(5월), 팝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의 구수하고 박식한 해설과 합창으로 된 올드 팝과 크로스오버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웰빙콘서트(7월), 지난 추억들을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와 함께 꾸며보는 야외음악회 '모닥불 피워놓고' (10월), 다양한 편곡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편곡의 새로움, 그리고 그 다양함' (11월)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월에 펼쳐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와 10월에 펼쳐질 '모닥불 피워놓고'는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모닥불 피워놓고'는 최소한의 반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흥겨운 야외음악회로 꾸밀 예정이다. 새해에 새롭게 기획한 무대인 만큼 김강규 지휘자는 꿈 많던 젊은 시절 밤새도록 캠프파이어를 하며 가졌던 추억들을 정겨운 노래들과 이야기와 함께 하는 특색 있는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그외 8월에는 부산 경남지역의 문화 교류를 위해 2000년부터 열고 있는 3개 시·도립 합창단 합동연주회가 2008년에도 변함없이 펼쳐진다. 또 2008년에는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타지역 청중들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으로 전 단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2007년 큰 사랑을 받은 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는 '크리스마스 캐롤나라'라는 타이틀로 12월 11일 부산문화회관 공연을 가진 뒤 을숙도문화회관과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에서도 가질 예정이다.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



새해 첫 날인 1월 1일 '2008 해맞이 부산축제' 축하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무자년 새해를 맞은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무용단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에서 만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올해는 공연횟수를 늘려 시립무용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객층을 확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복지관을 시작으로 3월과 9월 학교 순회공연,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9월 25일)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우리의 전통춤과 창작무용, 마당춤관 등 다양하면서도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공연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2008년 첫 무대는 1월 23일과 24일 '2008 우리춤 산책'으로 연다. 우리 전통춤의 맥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그동안 정기공연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우리춤의 열정을 펼치는 '우리춤 산책'은 승무, 태평무, 동래한량무, 설장고춤 등 12가지 우리 전통 춤사위를 한 무대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5월 22일과 23일 열리는 제 58회 정기공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05 여름마당춤관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새롭게 재구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신명과 해학이 살아있는 마당춤관으로 살려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당춤관 2008 무대에서는 계모의 학대로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흥련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인 '장화 흥련'을 마당춤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마당춤관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으로 두차례 무대에 올려진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흥기태 씨는 마당춤관 특유의 신명으로 관객들과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11월 6일과 7일 열릴 제 59회 정기공연에서 중국 연변지역 무용가를 초청, 남한과 북한의 전통춤을 접목시키는 특별한 무대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밖에도 2008년에도 미국 자매도시 순회공연과 인도네시아 순회공연을 통해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창단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부산 연극계의 버팀목으로 성장해온 부산시립극단이 그동안의 공연활동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이자 부산시립극단 창단 10주년인 2008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극단은 4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갈매기’를 시작으로 올 한해 2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기획공연,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4월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갈매기’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대표작으로, 고전극으로서의 시공간을 넘어서 보편적인 현대성을 내재한, 리얼리즘극의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연극사에서 중요한 작품만큼 제대로 된 무대를 올리고 싶다는 연출가 손기룡 씨는 지루하다는 틀을 깨고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관객 수준이 높아져가는 만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는 손기룡 씨는 이번 무대를 위해 체코의 유명 미술무대감독 등 실력있는 스태프들과 ‘리어왕’ 전성환, 이재용, 김윤석, 오달수 씨 등 지명도 있는 배우들을 섭외중이다.

하반기에는 부산시립극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무대에 올려졌던 정규 프로그램 중 주요작품을 선정, 부산시립극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공립극단을 초청, 창단 1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또, 현재 활동중인 국, 공립극단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교류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첫 번째 교류무대로 순천시립극단과 상호 초청무대를 갖는다.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시립극단이 순천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지는데 이어 12월에는 순천시립극단이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셰익스피어와 전통연희가 만나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태자 햄릿’은 6월 정기공연(5일~7일, 소극장)과 특별공연(12일~13일, 동래문화회관), 순회공연(18일~19일, 순천문화회관)을 통해 올 한해도 시립극단을 대표하는 고정 레퍼토리로 계속 무대에 올려지며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에서는 익살과 해학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창작극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을 무대에 올려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숨겨진 보석 같은 곡들로 즐거움 선사



2007년 12월 24일 창단이후 처음으로 대만순회연주회 길에 올랐던 부산시립청소년관현악단은 대만 순회 연주회를 준비하며 가졌던 각오와 열정으로 2008년을 활기차게 맞는다.

“1년 동안 단원들의 기량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교향악단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갖는 대만 순회연주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연습에 임해줘서 고맙고, 한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006년 7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이동신 지휘자는 한 회 한 회 연주회를 가지면서 달라지는 단원들의 열정과 기량에 많이 놀란다. 2007년은 단원들이 잘 따라준 덕분에 자주 연주하지 않았던 다양한 레퍼토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2008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3회의 정기연주회와 3회의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들을 가진다. 이동신 지휘자는 2008년에도 평소 학생들이 많이 연주하지 않지만 좋은 숨겨진 보석같은 곡들을 선곡, 청중은 물론 연주자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2008년 첫 연주는 3월 28일 봄과 어울리는 포레와 라벨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 제 28회 정기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이아, 플루티스트 이해경의 협연한다. 두 번째 무대인 제 29회 정기연주회는 5월 16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수석 정선화의 협연으로 미국의 현대 음악, 하반기에 갖는 제 3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배수정의 협연으로 민족주의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특별연주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솔로리스트들의 축제(7월 11일), 젊은 성악가의 밤(11월 4일), 송년음악회(12월 12일)도 2007년과 다른 특색 있는 레퍼토리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가능성 있는 젊은 성악가들을 위한 무대로 2007년 처음 시작된 ‘젊은 성악가의 밤’은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한다는 기본 취지를 잘살려 나갈 계획이다.

대만순회 연주회를 계기로 단원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된 만큼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순회 연주회도 꾸준히 가질 예정이다.

다양한 기획연주로 새로운 청중 개발

2008년으로 창단 35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7개 시립예술단 중에서도 신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단체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12월 28일 '송년을 위한 가족사랑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23년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하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전국 최정상급의 합창단으로 이끌어온 배정행 지휘자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떠나고 2008년부터 새로운 지휘자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JOY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콘서트콰이어를 지휘하고 있는 전상철 씨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모에 합격해 2008년 활동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8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4회의 특별연주회, 3회의 순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8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관객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담은 창작동요의 발굴과 편곡을 보다 강화해 청소년 청중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족 중심의 뮤지컬을 새롭게 시도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주요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연주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다른 시도와의 '교류음악회' 등을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관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의욕 넘치는 2008년을 맞는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연주방법을 통해 단원들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합창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부산시의 문화사절단으로 나아가는 교류음악회는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해 4월 11일과 12일 안양과 과천을 방문,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무대를 갖는다. 또 5월 31일에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9월 20일에는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을 방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연주할 계획이다. 7월에는 전국 23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제 16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도 참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올해는 1월 동계 합창 캠프와 8월 하계합창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과천과 성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합창단이 연합 캠프를 열어 합창단과의 교류에도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계획

월 별 단 체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부산문화회관 대 극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정기) 1/23(수) 138회 정기, 신년음악회 ▶ 교향(특별) 1/24(목) 신년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월빙) 3/6(목) 문화기획 ▶ 교향(정기) 3/7(금) 437회 정기 ▶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3/13(목)~24(일) 브로드웨이 42번가 ▶ 국악(정기) 3/31(목) 139회 정기 ▶ 청소년(정기) 3/28(금) 28회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창단 10주년 기념) 4/4(금)~5(토) 문화기획 ▶ 교향(정기) 4/8(화) 438회 정기 ▶ 교향(정기) 4/15(화) 439회 정기 ▶ 교향(정기) 4/24(목) 440회 정기 ▶ 합창(정기) 4/10(목) 125회 정기 <p>☆4/28(월) 예술단 체육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기획) 5/7~8(목) 문화기획 (7080콘서트) ▶ 교향(정기) 5/9(금) 441회 정기 ▶ 청소년(정기) 5/16(금) 29회 정기 ▶ 기획공연 5/17~18(일) 야외공연 ▶ 무용(정기) 5/22(목)~23(금) 58회 정기 ▶ 교향(정기) 5/29(목) 442회 정기 ▶ 소년소녀(정기) 5/31(토) (프랜들리콘서트) <p>☆국제연극제 대:4/30(수)~5/4(일) 5/11(일)~15(목)</p>
부산문화회관 중 극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특별) 2/19(화) 신년음악회 ▶ 교향(특별) 2/21(목) 신춘음악회 ▶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26(화)~3.1(토) 오페라 마술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을 위한 공연 4/16(수) 11:00 4/21(월) 11:00 4/27(일) 11:00 ☆국제연극제 4/30(수)~5/15(목) 	
區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향(월빙) 3/13(목) 을숙도문화회관 ▶ 소년소녀(특별) 3/15(토) 금정문화회관 ★외국인을 위한 공연 3/29(토) 11:00 동래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정기) 4/24(목) 140회 정기 금정문화회관 ★무용(특별) 외국인들을 위한 공연 4/6(일) 11:00 해운대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을 위한 공연 5/5(토) 11:00 동래문화회관 ▶ 국악(월빙) 5/8(목) 을숙도문화회관 ★외국인을 위한 공연 5/9(토) 11:00 해운대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소 극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무용교실발표 1/18(금) ▶ 무용(특별) 1/23(수)~24(목) 우리춤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특별) 2/20(수)~23(토) 향상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연극제 5/2(금)~14(수) 5/2(금)~15(목) ※야외광장
국제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무용교실강습 1/14(월)~18(금) 				

※이 공연 일정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교향(웹빙) 5/11(수) 11:00 문화기획</p> <p>합창(정기) 5/12(목) 26회 정기</p> <p>교향(특별) 5/20(금)</p> <p>음악콩쿠르 5/23(월)~27(금)</p>	<p>▶국악(정기) 7/3(목) 141회 정기</p> <p>▶교향(콩쿠르) 7/16(수)</p> <p>▶합창(웹빙) 7/18(금) 11:00 문화기획 (특별출연/임진모)</p> <p>▶무용(특별기획) 7/17(목)~18(금) 여름마당춤판 (우천시 대극장)</p> <p>☆음악콩쿠르본선 7/4(금)</p>	<p>▶교향(개관 20주년 기념) 8/19(화)(2회) 클래식은 내친구</p> <p>▶기획공연(개관 20주년 기념) 8/21(목)~24(일) 국립발레단 & 김용걸 초청공연</p> <p>▶국악(기획) 8/26(화) 팔빙수같이 시원한 음악회</p> <p>▶합창(특별) 8월말 3개시도합동</p>	<p>▶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9월중 오페라공연</p> <p>▶교향(특별) 9/19(금) 협주곡의밤</p> <p>▶소년소녀(정기) 9/20(토) (우정만들기)</p> <p>▶국악(기획) 9/22(월)~ 9/25(목) 민족음악페스티벌</p> <p>▶청소년(정기) 9/26(금) 30회 정기</p> <p>▶합창(기획) 9/30(화)</p>	<p>▶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10월중 '캣츠'</p> <p>▶교향(정기) 10/2(목) 443회 정기</p> <p>▶교향(정기) 10/10(금) 444회 정기</p> <p>▶기획공연 10/16(목)~17(금) 오페라공연</p> <p>▶합창(특별) 10/22(수)~25(토) 부산합창제</p> <p>▶국악(웹빙) 10/31(금) 문화기획</p>	<p>▶소년소녀(특별) 11/1(토) (특별한 음악)</p> <p>▶무용(정기) 11/6(목)~7(금) 59회 정기</p> <p>▶교향(정기) 11/27(목) 445회 정기</p> <p>▶합창(특별) 11/18(화) 창작음악회</p>	<p>▶합창(정기) 12/11(목) 127회 정기 ※교향/반주</p> <p>▶청소년(특별) 12/12(금)</p> <p>▶무용(청소년) 12/16(화)</p> <p>▶무용(장애우) 12/17(수)</p> <p>▶국악(정기) 12/19(금) 143회 정기</p> <p>▶소년소녀(특별) 12/20(토)</p> <p>▶교향(특별) 12/23(화)</p> <p>▶기획공연 12/24(수)~28(일) 발레공연</p> <p>▶교향(제야) 12/31(수)</p>
<p>국악(특별) 5/3(화)~5(목) 제 6회 부산전국 창작국악축제</p> <p>음악콩쿠르 5/23(월)~27(금)</p>	<p>▶청소년(특별) 7/11(금)</p> <p>▶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7/15(화) 기획공연</p>	<p>▶무용(특별) 8/22(금) 춤 작품전</p>		<p>▶극단(정기) 10/30(목)~ 11/1(토) 창작극</p>	<p>▶청소년(특별) 11/14(금)</p> <p>▶국악(정기) 11/20(목) 142회 정기</p>	<p>▶극단(청소년) 12/1(월)~3(수)</p> <p>▶극단(교류) 12/5(금)~6(토) 순천시립극단 초청공연</p>
<p>극단(특별) 12/12(목)~13(금) 동래문화회관</p>			<p>▶무용(특별) 9/25(목)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마당춤판)</p>	<p>▶국악(특별) 10/24(목) 을숙도문화회관 (청소년 협연의 밤)</p>	<p>▶교향(웹빙) 11/7(금) 금정문화회관</p>	<p>▶합창(특별) 12/12(금) 을숙도문화회관</p> <p>▶합창(특별) 12/16(화) 해운대문화회관</p> <p>▶합창(특별) 12/18(목) 금정문화회관</p>
<p>극단(정기) 7/5(목)~7(토)</p> <p>음악콩쿠르 7/23(월)~27(금)</p>	<p>▶무대개보수 (7/1~31)</p> <p>▶시민무용교실발표 7/25(금)</p>	<p>▶시민연극교실발표 8/2(토)</p>				
	<p>▶시민무용교실강습 7/21(월)~25(금)</p>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볼거리 선사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이 2008년 새해에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부산문화회관은 국내외 유명연주자와 연주단체 등이 찾는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이 상주하며 부산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은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국내외 우수 공연을 유치해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예술단별로 2008년 주요 공연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연준비에 들어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5회, 국악관현악단은 19회, 무용단은 14회, 합창단은 19회, 극단은 15회, 소년소녀합창단은 10회, 청소년교향악단은 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은 부산지역 區문화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정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에서도 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본 연주 외에 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소외 지역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신청단체와 협의해 계속 진행해 나간다.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은 합창단의 '7080콘서트', 국악과 대중음악이 만나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는 2008년에도 계속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예술단별 공연 외에도 5월경 개관 20주년을 축하하는 합동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예술단 공연 외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획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기획공연은 부산시민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인지도가 높은 우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그랜드오페라단의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국립발레단과 김용걸 초청공연 등이 확정되었다.

개관 20주년 첫 무대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무대에 오르는 그랜드오페라단의 마술피리. '마술피리'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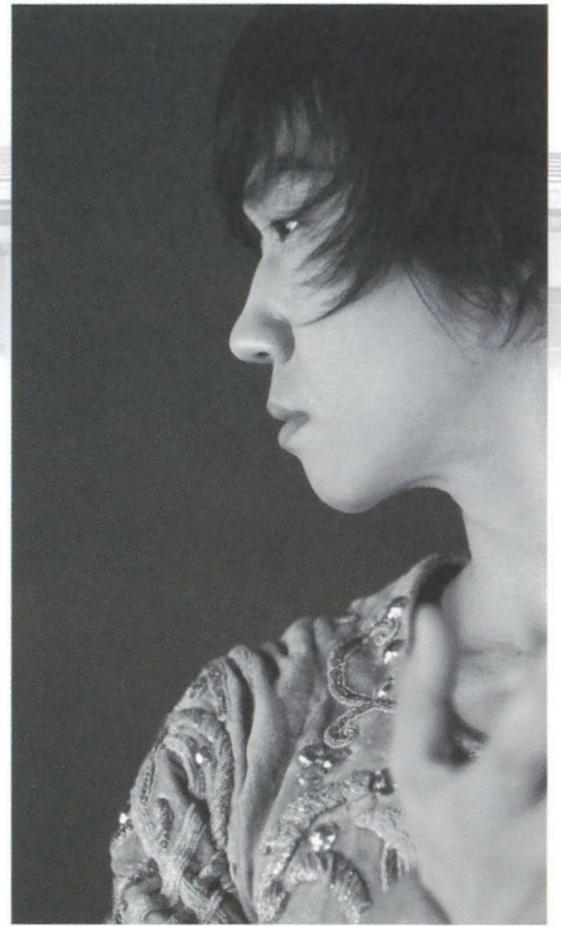


그랜드-오페라단 '마술피리'

으로 독일어 대사와 아리아를 우리말로 바꾸어 노래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오페라의 이해를 도와준 화제작이다. 2008년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오페라의 재미를 더 해줄 계획이다.

3월에는 3월 13일부터 환상적인 탭댄스와 화려한 무대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화제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부산문화회관 기획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1980년 초연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로드웨이 사상 최장기 공연작으로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01년 리바이벌된 버전이다. 2001년 공연 당시 8개 부문 후보에 올라 리바이벌 뮤지컬상, 외부비평가 협회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립발레단을 초청, 부산시민들에게 화려한 발레의 무대를 선사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뮤지컬 '캣츠'를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 대관공연으로는 오랜 기간 전 세계의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세계 최초로 부산 연극인의 열정으로 뮤지컬로 제작되어 소극장에서 장기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의 우수 프로그램들을 유치,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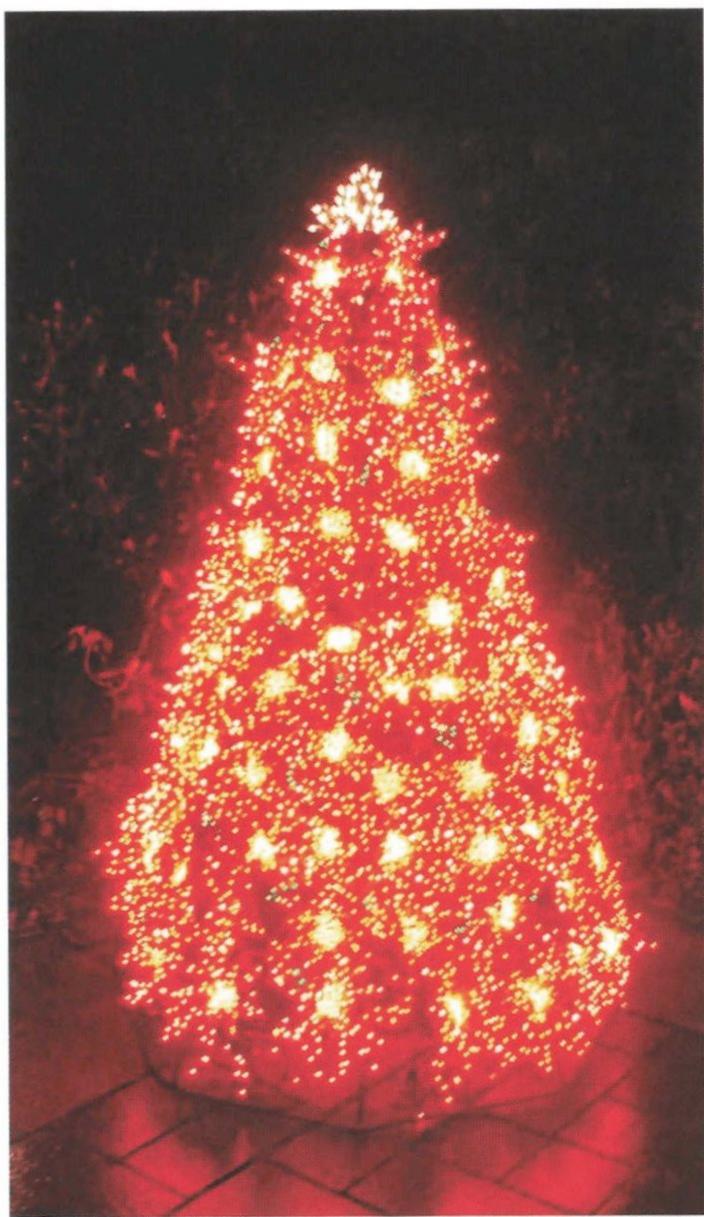
8월 다시 부산을 찾는 발레리노 김용걸.



3월 13일부터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팀 첫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미국의 할리데이 시즌 (The Holiday Season)

김현숙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미국 통신원



미국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기간까지를 폭넓은 의미로 할리데이 시즌(The Holiday Season)이라고 한다.

한국의 최대 명절이 단연 '설날' 과 '추석'이라고 하면, 미국의 최대 축제를 꼽는다면 분명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과 '성탄절(Christmas Day)'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판 추석인 추수감사절인 11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간까지를 폭넓은 의미로 할리데이 시즌(The Holiday Season)이라한다.

'해피 할리데이(Happy Holiday)' 시즌 시작~

'추수감사절'은 정확하진 않으나 17세기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발을 들이며 비롯됐다고 한다. 어렵게 정착한 이주민들이 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추수한 음식인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빵, 감자, 호박파이 등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정착할 때 친절을 베푼 인디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일을 기념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저마다 멀리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러 흥분되어 길을 나서는 모습은 한국의 추석과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친가중심으로만 모이는 한국과는 달리 외가식구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 평소에 초대하고 싶었던 이웃, 제자 혹은 스승 등 초대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또한 매년 명절후유증을 겪는 한국주부들이 부러워할 만한 관습이겠지만, 명절음식 준비도 주 요리인 칠면조(터키)요리는 집안주인이 직접 만들고 그 외의 사이드음식은 초대된 사람들이 미리 배분하여 만들어 가져온다. 학교나 회사들도 팻럭(Potluck)파티처럼 자연스럽게 한집에 한 가지씩 음식을 나누어 만들어 와서 함께 즐긴다. 이 기간에만 4천 5백여만 마리의 칠면조가 '대학살'을 당해 식탁에 올려지고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즐거운 휴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

온 가족이 편안히 즐기는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온 국민이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때문이다. 흔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Black



산타마을

Friday)’는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황금 세일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말한다. 특히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은 미국전역이 ‘초대형 세일’로 몸살을 앓는다.

바로 이날 모든 쇼핑객들이 1년 중 가장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가게가 문을 열면 물건을 고르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 쇼핑을 한다. 필자도 이 특이한 쇼핑문화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사진기를 챙겨 들고 새벽부터 주요 쇼핑몰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주의 대부분의 쇼핑몰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지만, 고급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Premium Outlets’은 금요일 새벽 0시부터 쇼핑객들을 맞이 때문에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여 그곳을 가 보았다. Premium Outlets을 향하는 고속도로는 진입부터 넘쳐 나는 자동차들로 가득하여 눈앞에 보이는 브레이크 등이 마치 고속도로에 뿌려놓은 크리스마스 전등처럼 불타 보였다. 40분 거리의 쇼핑몰을 2시간여 만에 도착하여 바라본 그곳은 한마디로 전세계인의 회합장소인 듯 미국인, 아시아인, 유럽인, 아랍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필자가 미국 온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보긴 처음인 것 같다.

여성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Coach’, ‘Fendi’, ‘Calvin Klein’, ‘Gucci’ 등 명품 가게 앞에선 끝도 보이지 않게 기다리는 행렬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두 세시간을 기다려 물건을 구입했어도 계산하기까지 두 세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끝도 없는 기다림의 쇼핑인 것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Macy’s’와 대형마트인 ‘Walmart’의 경우도 같다. 총성 없는 전쟁처럼 하루 종일 때로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상점과 거리는 북새통을 이뤄 매너와 질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한편 씁쓸한 느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합리적인 경제관념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미국인들도 최대 75%까지 세일을 하는 이날만큼은 자녀들과 가족, 연인들을 위해 선물을 산다고 한다. 이 시기의 판매고는 한해 전체의



추수감사절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 세계의 쇼핑 마니아와 관광객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는 재미있는 문화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애틀의 새해맞이 불꽃놀이.

20%이상을 차지해 시장가게나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알뜰하게 미리 사놓은 선물로 집안가게에도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서 필자도 1년에 한번뿐인 시애틀 거리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추위를 잊어가며 그들의 축제를 느꼈고, Seattle Center에서의 무료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 세계의 쇼핑 마니아와 관광객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는 재미있는 문화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미국의 전역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한다. 이들의 축제는 2008년 새해까지 이어진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 종교성을 떠나 미국인들의 1년 중 가장 큰 할리데이로 12월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보다는 넓은 의미의 '해피 할리데이' 라며 인사와 안부를 전한다.

필자는 한국에 있을 때도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미국에서도 별다른 리 없

는 휴일이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연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부산스럽게 전해도 내게 그런 감흥이 쉬 전달되지 않아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의 나는 여기에서 참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문화를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시청이나 광장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일반적으로 가게나 백화점 또는 집 안에 트리를 장식하고 가까운 가족, 친구, 회사동료들과 외식을 즐기면서 연말연시의 모임을 가지는 게 보통일 것이다.

미국인의 크리스마스는 교회모임을 떠나서 가족중심의 성탄절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듯 하다. 그 중의 하나가 '가족의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을 꼽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독주택 생활을 하는 미국 가정에서는 12월 초부터 자기네 집을 장식하는 것이 가족의 중요한 행사라 한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집을 장식하고 꾸밀 것인지 해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작에 대한 의논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가족이 다같이 장식품을 사와서 하루 또는 며칠, 몇 주일에 걸쳐 장식하고 설치한다. 그 작업은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족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에 더욱 소중한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도 크리스마스 집 장식을 멋있게 꾸미는 매뉴얼도 많고 집 근처의 마트나 가게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장식거리를 사러 나온 가족들로 넘쳐난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꾸미지 않은 집들도 많이 봤다. 어쨌든 이렇게 예쁘고 독특하게 꾸며진 집들에 대해

동네마다 콘테스트를 하는 곳도 많다. 동네의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잘 꾸민 집을 심사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해 여러 사람이 우승한 집을 구경 온다. 스튜디오 생활하는 나 또한 대리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밤마다 예쁘고 멋지게 꾸민 집들을 찾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수수하고 은은하게 꾸민 집, 화려하게 형형색색으로 꾸민 집, 예수의 탄생을 인형들로 재현해 놓은 집, 동물전등으로 독특하게 꾸민 집 등등 가로등 불빛이 약한 거리가 여러 모양의 반짝이는 불빛들로 환해서 지나다니는 구경꾼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우승한 집에서 받은 상패는 가족의 이름으로 봉사단체에 도네이션하는 게 보통이다. 이처럼



'벨뷰 불빛축제(Bellevue Botanical Garden Lights)'는 'Cal Shorts'가 식물원에 수억 개의 전등으로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화려한 자연을 꾸며 놓았다.

자기네 집을 장식하는 것이 곧 가족과 함께 보내는 과정이고 일상이며 나눔의 사랑을 이웃들과도 함께 하는 가족중심의 크리스마스 축제인 것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시애틀 부근의 벨뷰(Bellevue)의 자랑거리인 '벨뷰 불빛축제(Bellevue Botanical Garden Lights)'이다. Cal Shorts라는 사람이 기증한 땅에 벨뷰시가 식물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이 정원에 수억 개의 전등으로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화려한 자연을 꾸며 놓았다.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 불빛을 보기 위해 시애틀 주변도시의 사람들이 매년 찾아든다. 다양한 전등색으로 꽃 열매와 나비 나무와 호숫가의 백조 등으로 동화 속의 자연으로 만들었기에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벨뷰의 Garden Lights 는 일반사람 모두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윌리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으면서 밝게 점액을 끌고 있는 민달팽이 윌리를 찾아 식물원의 정원을 뒤흔다고 한다. 이곳 역시도 시민들의 자원 봉사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사기간중의 주차요금도 전액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니 그 불빛이 더 따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네 집과 주변의 자연들을 가꾸고 장식해 가는 미국의 작은 축제의 중심엔 역시도 '가족'이 있다. 뭉클하고 따스해지는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연말연시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경배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치단체가 이를 격려하는 이 독특한 문화들을 볼 수 있어서, 연말연시 홀로 미국 생활하는 나 같은 유학생에겐 가족의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게 해주는 축제인 것 같다.

섣달 그믐과 정월 초하루

민립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높은 산을 울리면서 / 제석(除夕)의 종이 울고 있다 / 산속간(山俗間)을 흘러내려 / 제석의 종이 울고 있다 / 옛날 생각 쌓여있는 / 이 해도 이제는 저문다 / 생각하면 펄 바쁘게 흘러가버린 그 세월”

고등학교 시절 음악시간에 배운 ‘제석’이란 제목의 가곡이다. 대구시 봉산동에 있던 오동산(梧桐山)에서 펴낸 ‘108곡집’에 실려 있던 노래인데 작사자도 작곡가도 아련한 옛생각 속에 묻혀버려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해 내기가 힘들다.

섣달 그믐은 묵은해의 모든 부정(不淨)과 불상(不祥)을 말끔히 소제(消除)하고 깨끗한 새날(元旦)을 맞기를 염원(念願)하는 ‘길닥음’의 날이다. 요즈음은 교회마다 대형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하는가 하면 거리마다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연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동참하라는 방송이 계속되기도 한다.

옛날엔 그믐날이 되면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당에 불을 피워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었다. 또한 이날 궁중에서는 연종포(年終砲)라 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대포를 쏘기도 했다. 사악(邪惡)한 귀신들이 이 소리에 혼비백산(魂飛魄散)해 달아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섣달 그믐에는 조리장수가 온 마을을 돌면서 복조리를 사라고 외쳐대기도 했으며 조리 이외에 갈퀴와 빗자루도 팔았다. 복조리는 쌀을 일듯 복을 일어주고 재앙을 걸러주기를 바라는 아낙네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고 갈퀴와 빗자루도 흠어져 있는 것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용도이기 때문에 복갈퀴, 복빗자루라고 했다.

또한 그믐날 밤에는 방과 마루는 물론, 부엌, 광, 화장실, 마구간 등에도 촛불이나 등불을 식구수대로 밝혔다. 이를 수세(守歲) 즉 ‘해 지킴’이라고 했는데, 새해를 신성(神聖)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되거나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새해 첫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폭포처럼 퍼붓는 잠에 못이겨 간혹 잠깐이라도 조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분칠을 하여 흔들여 깨워서 놀리는 풍습도 있었다.

섣달 그믐에는 산을 마주보고 “메산아, 메산아”하고 크게 소리쳐서 그 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오면 “명복 내주고, 내 더위 다가지고 가라”하는 기복(祈福)풍습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낙네들은 일년 내내 모아 두었던 머리카락을 이날 저녁 대문간에서 태웠다. 새해에 자신에게 돌아올 액이 소멸(消滅)되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묵은해를 보내는 정성들이 이처럼 간곡한 것 못지않게 새해를 맞이하는 정성 또한 지극(至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온 겨레 정성덩이 해돼 오르니 / 올 설날 이 아침야 더 찬란하다 / 뉘라서 겨울더러 춥다더냐 /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 내손으로 만들자 // 깃발에 바람 세니 하늘 뜻이다 / 따르자 옳은길로 물에나 불에 / 뉘라서 겨울더러 흐른다더냐 / 한이 없는 우리 할 일은 맘껏 펼쳐 보리라.”

“새해가 온다 동쪽 끝에서 / 동해 물에 해가 낮을 씻고 온단다 / 해처럼 따뜻한 우리들 마음 / 새해를 맞이하자 따뜻한 새해 // 새해가 온다 눈 나라에서 / 눈을 펄펄 날리며 찾아온단다 / 눈처럼 깨끗한 우리들 마음 / 새해를 맞이하자 깨끗한 새해”

앞은 정인보 작시의 ‘새해의 노래’이고 뒤는 윤석중 작시의 ‘새해 노래’이다.

정인보 선생의 시는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손으로 만들자”며 창조와 개척의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깃발에 바람 세니 하늘 뜻이다. 따르자 옳은길로 물에나 불에”라고 하면서 우리가 봉착하는 어떠한 시련과 수난도 숙명처럼 길들이며 좌절하거나 실의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매진(邁進)하자는 불굴의 의지, 불요의 신념, 불퇴전의 용기를 고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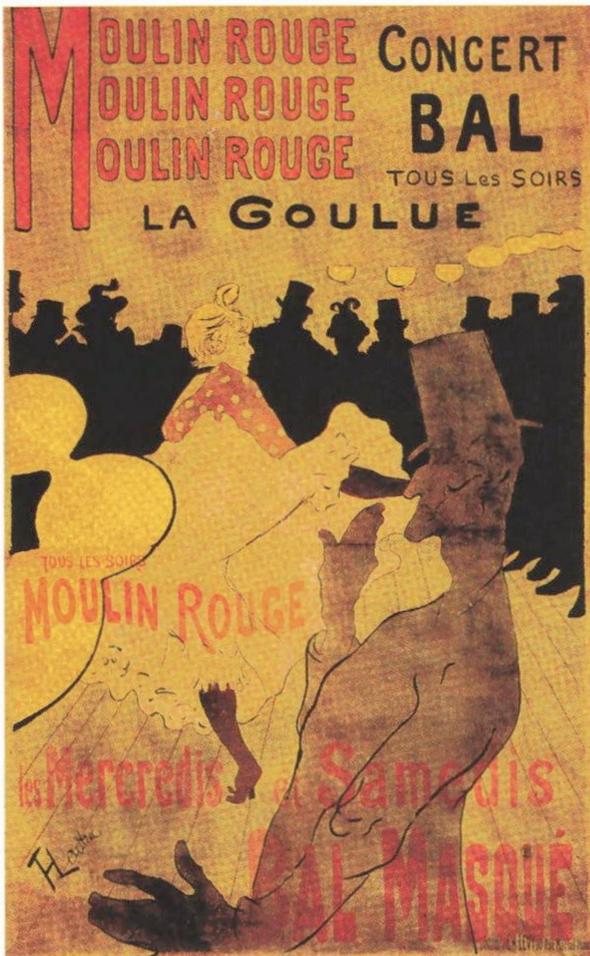
정해년(丁亥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게 된다.

묵은해는 정말 다산다난했다. 이제 그 모두를 깨끗이 씻고 청신한 생각, 청신한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손으로 봄을 만들려는 의장(意匠)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설날 그믐날 저녁 제석(除夕)의 노래에 부정(不淨)과 불상(不祥) 죄다 실어서 날려 보내고 동해물에 해가 낮을 씻고 오듯이 우리도 말갱게 낮을 씻고 설날의 새해를 경건(敬虔)하게 맞이하자.

파리의 영원한 문화아이콘, 로트렉

채경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로트렉의 다색석판포스터 '라굴뤼'.

포스터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다. 간단한 문안, 효과적인 그림이 조형적으로 표현되어 대중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스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 도망친 노예를 체포하려는 포고문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광고매체로서 근대적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1800년 독일의 A.제네펠더에 의해 개발된 석판인쇄술과 영국의 인쇄산업의 혁신으로 활판술 少某痔關菜(多色印刷術)이 크게 발달한 19세기 이후이다.

1866년 파리에서 근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쥘 세레가 자신의 공방(工房)에서 다색석판포스터를 찍기 시작한 이후 로트렉, 보나드 등 당대 일류 화가들이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면서 파리는 포스터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중 로트렉은 대담한 색채표현, 뛰어난 데생, 일본판화의 영향에 기인한 단순하고 신선한 구도 등으로 파리 시민들을 매혹시켰다.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1864~1901)은 유난히 파리의 밤을 사랑한 화가다. 타고난 예리한 직관으로 인상적인 색채와 날카로운 실루엣기법을 과격적으로 활용하여 불후의 포스터를 그려 1890년대 파리 시민들의 많은 사랑

을 받았으며, 살아생전의 유명세만큼 사후 또한 '밤의 환락가를 그리는 퇴폐적인 화가'라는 비평에 시달리기도 했다.

37세로 요절하기까지 1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희, 가수, 광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주소재로 한 369점의 판화를 남겼는데 특히 포스터 30여점은 석판화와 포스터디자인에 크게 공헌하였다. 27세 때 처음으로 석판포스터를 선보였으며, 1894년 첫 번째 석판화집을, 1896년 석판화집 '창부들'을 출간하고, 말년에는 단색석판화작업에 열중하는 등 포스터라는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터를 주류 미술 속에 끌어들이고 포스터의 양식을 강화하여 회화의 향후 발전과 연결시키는데 기여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프랑스는 대중문화의 번성기로서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라 칭하며 카바레가 파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른다. 1889년 10월 6일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 문을 연 카바레 '몰랭루주'는 그해 3월, 파리세계박람회 때 세느 강변에 세워진 에펠탑 못지않게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저속한 춤이라는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깃털 장식 의상을 걸치고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이나 빠른 템포의 2박자 또는 4박자의 곡에 맞추어 다이내믹한 프렌치 캉캉춤을 추는 무희들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한다. 나치 치하의 파리지앵들도 이곳을 찾아 에디트 피아프의 상송을 들으며 우울한 마음을 달랬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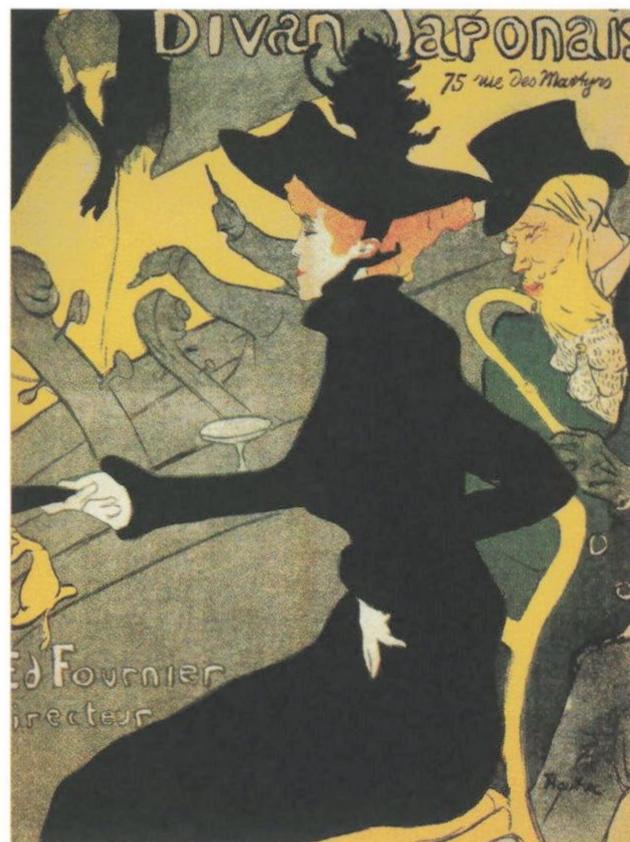
로트렉은 '몰랭루주'의 오프닝 파티에 초대된 이후 매일 이 곳에서 압생트를 즐기면서 개인적 경험을 극화(劇化)하여 어둡고 그늘진 사회의 일면을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관찰하여 세태를 풍자하는 등 파리의 밤거리 문화를 가감없이 기록하였으며 그 표현수단으로 포스터라는 매체를 사용했다.

화려함 속에 고단한 삶이 배어있는 몽마르트르는 로트렉의 인생유전(人生流轉)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신의 신체적 불구와 고독을 잊으려 치명적 유혹이 꿈틀거리는 몽마르트의 밤거리와 카페에서 생활하는 여자들의 일상적 삶의 애환에 관심을 가지고 실의에 빠진 인간의 내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면서 작품의 영감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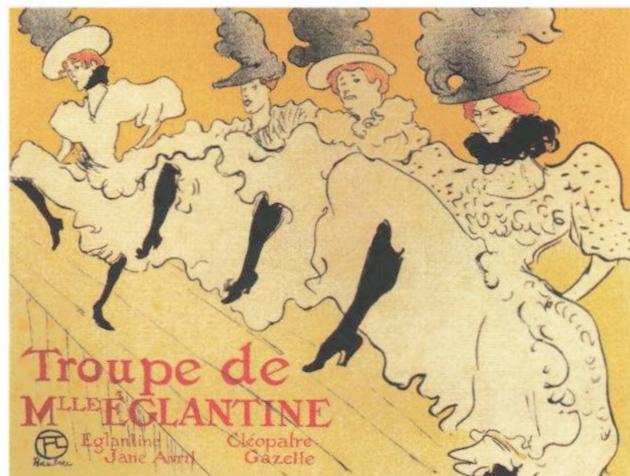
또한 여체에 대해 그 자신이 표현했듯이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여겨 자칫 천박해 보일 수 있는 무희들의 허황된 웃음과 가식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 고뇌와 애수를 그려,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으며 항상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였다. 유머, 풍자, 희화적 요소,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태, 장식적인 선 등은 실루엣으로 대변되는 로트렉이 포스터에 사용한 장치들이다.

로트렉의 최초의 기념비적인 다색석판포스터는 극장포스터 '라 굴뤼'이다. 세탁부와 서커스단 출신으로 당시 21세였던 신인댄서 '라 굴뤼'가 무대 중앙에서 카드리유(4인 1조의 춤)를 신명나게 추고 있는 이 포스터는 현재 몇 장 남지 않아,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수집의 대상이 되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춤추는 댄서의 흰색치마는 빨강, 파랑, 노랑, 검정색 등의 색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율동성이 가미됨으로써 현란한 춤사위는 깃털과 같이 가볍고 경쾌하다. 그리고 포스터의 등장인물들 중 잔느 아브릴 및 메이 밀튼 등은 당대 파리의 이름난 연예인들로 특히 섬세한 미모의 댄서 잔느 아브릴은 고뇌의 화신으로 로트렉 그림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우연일까? 고흐, 라파엘로 등 천재화가와 같이 로트렉도 37세의 짧은 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감하고, 아틀리에의 작품은 전부 알비시립미술관에 기증되었다. 로트렉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누렸으며, 1930년대 피카소의 단순하고 간결한 묘사의 작품들을 보면 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디방 지포네



마드모아젤 에글랑 틴무용단

■ 2008년 1월부터 관화가 채경혜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관화예술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관화예술의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도서관 건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이주홍 문학관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를 위해 모처럼 가족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주홍 문학관으로 찾아가보자.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거목 향파 이주홍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주홍 문학관은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선생의 대표작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장소로 인기가 높다.

요산 김정한 선생과 더불어 부산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향파 이주홍 선생은 1906년 합천에서 태어나 1987년 작고할 때까지 아동문학, 소설, 수필, 시, 희곡 등 문학의 전 장르에 걸친 방대한 창작활동을 통해 100여권의 저서를 남김으로써 한국문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대표적인 문학가이다. 특히 일제시대때 어린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동문학에 전력하여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토대를 구축했던 이주홍 선생은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기도 했다.

이주홍 선생은 어려운 시대와 삶에 부대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큰 길을 넓혔지만 그 평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잊혀진 자료들이 발굴되고 그의 생애와 작품들이 본격적인 학술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선생의 문학세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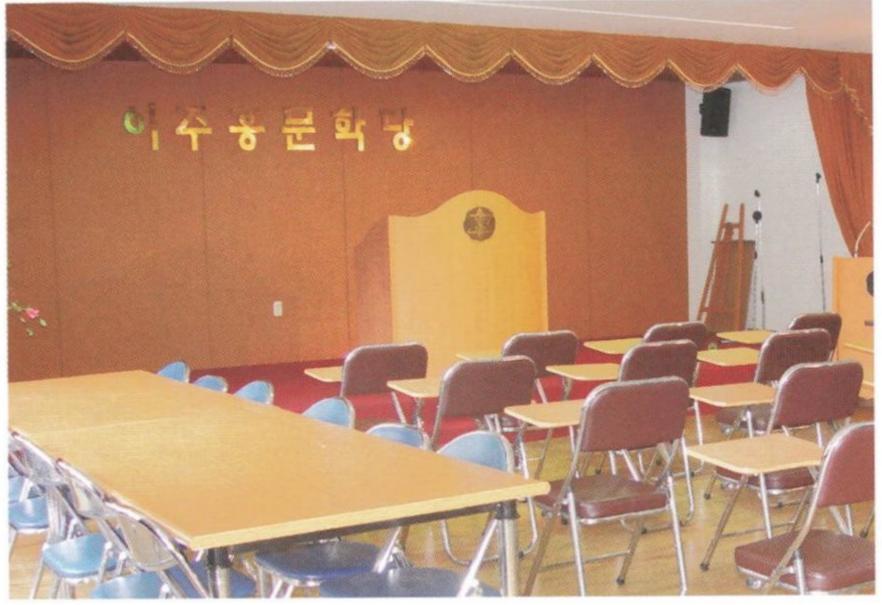
금정산 자락인 동래의 차밭골, 유락여중 뒤쪽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면 햇빛을 머금은 2층 목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주홍 문학관은 지난 2002년 10월 개관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이 별세할 때까지 거주했던 동래구 온천동 자택을 개조한 곳이었다. 그러던 중 문학관 인근 주변이 대규모 복합상가로 변화하면서 지난 2004년 5월 이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문학세미나와 토론회 장소로 이용되는 1층 강당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이주홍 선생의 일대기와 활동사항, 애장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특히 전시관 한쪽에는 선생이 평소 창작활동을 펼쳤던 서재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 생전 이용했던 1만여권의 도서와 선생의 자취가 배인 작품 노트, 일기, 그리고 전국의 문인들과 교류했던 편지 등 중요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전시관은 작품활동과 예술활동, 문단활동, 매체활동 등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선생의 대표작들과 이원



'아동문학의 보고'인 이주홍문학관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교육적인 장소로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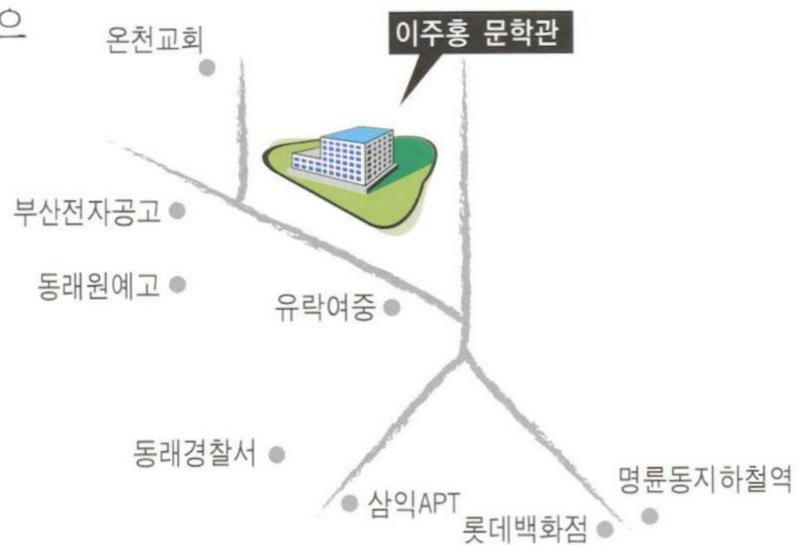
이주홍문학관은 문학세미나와 토론회 장소로 이용되는 1층 강당과 유품이 전시된 2층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방정환, 윤석중 등 초창기 우리나라 아동문학을 이끌었던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아동문학의 보고'로 손색이 없다. 또 선생의 친필원고와 선생이 직접 편집과 표지, 삽화를 맡았던 문예지 '신소년' '별나라', 1936년 선생이 창간한 카프계열 순수문예지 '풍림' 등 손때 묻은 2, 30년대 희귀 문학지 등도 함께 소장되어 있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한다.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서화를 즐겼던 선생이 평소 사용하던 문방사우와 낙관 등의 유품과 전통 문인화를 근대 서화와 접목시킨 섬세하면서 선비의 품격을 잃지 않는 서화작품, 그리고 조선일보에 연재된 만화 '뚝뚝이의 설노리', 동요 '편싸흙의 노래' 등 문학 뿐 아니라 서예, 문인화, 만화, 작곡 등 전 장르에 걸쳐 다재다능함을 보였던 이주홍 선생의 품모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으로서 뿐 아니라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도 펼치고 있는 이주홍문학관은 그동안 동시, 동화 창작교실, 창작논술교실, 문학세미나, 문학강연회 등을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주홍문학관은 최근 선생의 이름을 딴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인 '이주홍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홍문학관에서는 이미 문학관 옆 부지를 매입하고 사립공공도서관 인가를 받았다. 12억으로 예상되는 예산 중 40%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나 나머지 예산은 문학관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뜻 있는 시민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가 11월 완공예정인 이주홍 도서관은 열람실 및 신문자료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장애인 열람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이주홍문학관(552-1020, www.leejuhong.com)

이웃과 공유하는 적극적인 문화활동 펼치는 부산문화대학 1기수료생들의 모임 **컬쳐마당**



부산의 새로운 문화지킴이로 탄생한 컬쳐마당.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새로운 문화지킴이가 탄생했다. 지난 10월 온라인 카페에 동지를 튼 ‘컬쳐마당(cafe.daum.net/bmd07)’은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는 물론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이웃과 공유하는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컬쳐마당’은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10월 개강한 부산문화대학을 수료한 1

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부산문화대학은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인 감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해 개설한 문화예술강좌로,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지휘자를 비롯 시립무용단 흥기태 안무자, 시립극단 손기룡 연출자, 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 등 최고의 강사진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개강과 함께 큰 인기를 모았다.

현재 컬쳐마당에는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문화대학을 수료한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컬쳐마당에 가입할 수 있다.

컬쳐마당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첫 공식행사로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음악감상회를 가졌다. 부산교통공사 음악방송 제작단 단장으로 있는 김종욱 회원의 해설로 진행된 이날 음악감상회는 KBS-FM 실황음악회로 녹음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 12월 5일에도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두 번째 음악감상회를 가져 회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컬쳐마당에서는 12월이 가기전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음악감상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나눔 음악감상회’도 계획하고 있다.

“컬쳐마당은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며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우리의 이런 뜻에 동참하는 연주자나 예술단체들을 참여시켜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예술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컬쳐마당 개설에 숨은 공로자인 카페지기 이영일 씨는 이런 회원들의 열정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 우선 기존 열리고 있던 음악감상회를 정례화시켜 미술과 음악 감상을 접목한 ‘작품이 있는 음악감상회’ 등 음악감상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불우시설 청소년 등과 함께 직접 감상하고 직접 연주도 해보는 ‘나눔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을 통해 부산시립예술단의 든든한 서포터로 활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컬쳐마당은 오는 4월 개강을 앞두고 2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부산문화대학 홍보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막연하게 클래식음악에 관심을 가져오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부산문화대학과 인연을 맺었다는 김은정 씨. 부산문화대학 학생장을 맡아 컬쳐마당 활동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는 컬쳐마당이 활성화되면 부산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음악감상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욱 회원은 중학교 시절부터 클래식음악을 즐겨 들어온 클래식음악 애호가이다. 시민자원 봉사단인 부산교통공사 음악방송 제작단 단장이면서 한 단체의 요청으로 매주 ‘웰빙클래식 음악감상회’를 1년 넘게 진행해온 김종욱 씨에게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은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컬쳐마당의 음악감상회를 두차례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열정에 놀랐다는 그는 앞으로 음악감상회를 정례화시켜 회원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문화회관 자원봉사단인 악어봉사단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회원 운영애 씨. “문화대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와 접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화활동을 전파시켜나간다면 부산문화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그는 앞으로 부산문화대학과 컬쳐마당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자신한다.



‘컬쳐마당’은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10월 개강한 부산문화대학을 수료한 1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사진은 부산문화대학 수업장면)



지난 11월 14일 첫 공식행사로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음악감상회를 가진 컬쳐마당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음악감상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나눔 음악감상회’도 계획하고 있다.

낭만의 부산 겨울 바다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

2008 부산국제음악제 (Busan Music Festival)

1월 23일-2월 3일 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2005년 1월 처음 닦을 올린 부산국제음악제가 1월 23일 4번째 막이 오른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부산에 함께 모여 2중주에서 8중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실내악곡을 들려주는 부산국제음악제는 음악 비수기로 알려진 부산의 겨울 음악계에 큰 활기를 불어넣은 실내악 축제이다.

올해는 1회부터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맡아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신수정,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등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연주자 12명과 부산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주단체와 연주자가 초청되어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부산국제음악제 기간 중에 부산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인들을 위해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테크닉을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는 '뮤직 아카데미'가 함께 열려 음악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올해 첫 무대는 23일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 백혜선, 윌리엄 드로자, 주희성, 제임스 버즈웰, 데이빗 퀴글, 양고운과 부산의 연주자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소프라노 김경희가 함께 여는 오프닝콘서트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부산국제음악제에 처음으로 참가한 윌리엄 드로자는 15세 때 피아티고르스키 첼로 콩쿠르에 우승한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다. 제임스 버즈웰은 다재다능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독주회, 실내악, 솔로리스트 및 지휘자, 교육자로 활약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임스 버즈웰은 무엘 바버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낙소스 레이블로 녹음하여 2003년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비올리스트 데이빗 퀴글은 1992년 스페인 갈리시아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수석 비올리스트가 되면서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활동 중이다. 양고운은 막스 로스탈 콩쿠르 1위, 파가니니, 루돌프 리피처, 티보 바르가 콩쿠르에 입상해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연주자이다.

두 번째 무대는 25일 제롬 로즈 피아노독주회로 마련된다. 우리시대의 마지막 로맨틱 피아니스트로 세계유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롬 로즈는 20대 초반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소나타와 슈만의 카나발,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를 들려준다.



26일에는 부산국제음악제와 부산의 대표적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음악감독/임병원)가 들려주는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부산국제음악제의 스타 음악가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첼리스트 정명화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3중 협주곡), 첼리스트 윌리엄 드로자가 협연하는 하이든 첼로협주곡,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가 협연하는 베토벤의 코랄 환타지(합창환상곡)가 연주된다.

27일에는 정경화, 장영주의 뒤를 잇는 천재 소녀에서 원숙미를 더해가는 이유라 바이올린 독주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1985년 한국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1994년 미국으로 건너 간 이후 줄리아드 음대에서 강호와 도로시 달레이를 사사했다. 최근에 그녀는 뉴욕 필하모닉, 볼티모어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홍콩 필하모닉 그리고 몬테 카를로 필하모닉 등의 수많은 우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을 펼쳤다. 이유라는 2006년 제 6회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1위를 차지했다.

29일은 라이징 스타 김규연 피아노 독주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김규연은 14세 때인 1999년 바르토크-카발레프스키-프로코피에프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천재소녀 피아니스트로 알려지며 미국 미주리 콩쿠르 2위(2000), 지나 바카우어 영 아티스트 콩쿠르 1위(2001), 제네바 콩쿠르 최연소 특별상(2002), 제7회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2006)를 차지하며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라이징 스타이다.

30일에는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부산문화회관에서 마련된다. 한국 피아노계의 대모인 피아니스트 신수정을 비롯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양고운, 이유라, 비올리스트 데이빗 퀴글, 첼리스트 정명화, 윌리엄 드 로자가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주며 부산국제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 외 2월 1일에는 뮤직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초청연주자와 함께 앙상블을 들려주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2월 2일에는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가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인상주의 음악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드뷔시(Debussy)

드뷔시(Debussy)의 음악은 다분히 몽환적이다. 때로는 관능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살갓으로 스멀거리며 기어드는 미묘한 쾌감같은 것도 느끼게 한다. 알고 보면 이런 류의 느낌은 그가 여러 작품에서 시도한 인상주의적 표현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인상주의 음악, 이 새로운 경향의 성립엔 19~20세기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상주의 회화와 말라르메를 비롯한 상징주의의 문학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인상주의 미술은 종래의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다.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 이러한 미술경향에서 자극받은 인상주의 음악 역시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통해서 섬세하고 자극적이고 색채적인 음의 효과와 모호한 분위기를 강조하게 된다. 서양음악사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에 드뷔시가 곡을 붙인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에 의해서 이 양식이 확립되었다고 쓰고 있다. 미술에서 그러했듯이 이 작품에서도 19세기를 지배했던 독일적인 음악기법이 의식적으로 파기되고 있다.

바그너나 말러가 음악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낭만주의 음악을 비대하게 만든 것에 비해 인상주의 음악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현상을 마음 속에서 느낀 인상으로 표현했듯이 각각의 음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함으로써 마음에 비친 미묘한 인상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종래의 형식이나 작곡기법에 구애되지 않고 특수한 화음변화를 통해서 색채적인 음향을 만들어냈다. 악기 편성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프와 함께 등장하는 트럼본에 굳이 약음기를 붙이라는 지시를 하는 등 특별한 기법이 강구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음악을 쓴 대표적 인물이 드뷔시이다. 그에게 있어 전통적인 화성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젊은 시절 한 교수가 그에게 어떠한 화성규칙을 따르냐고 묻자 "나는 단지 내가 좋은 대로 할 뿐" 이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음색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작곡가로서 새로운 음향의 색채를 위해 혁신적인 화성과 리듬을 구사했다.

인상주의 음악에서는 종래의 장조나 단조와는 다른 교회선법, 5음음계, 온음음계 등과 함께 반음계적인 화음이나 평행화음의 사용으로 기능화성이 파괴되고 있다. 아울러 소나타 형식의 원리는 자유롭고 유연한 구성법으로 대체되었다. 선율은 형식에 갇힌 견고한 형태를 버렸고 리듬도 유연해졌고 음색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됐다. 드뷔시는 이 같은 경향을 '녹턴'이나 '바다' 등의 관현악곡, '전주곡집'과 같은 피아노 작품에 반영했다.

인상주의는 강력한 악파로서는 존재하지는 못했지만 참신한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녔다. 낭만주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었고, 현대음악의 지평을 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상주의의 양식을 채용한 작곡가로는 프랑스의 라벨, 에스파냐의 파야, 이탈리아의 레스피기, 영국의 델리어스, 홀스트, 러시아의 스크리아빈, 스트라빈스키, 헝가리의 바르톡, 코다이 등을 들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8회 정기연주회 및 신년음악회

傳統의 歌 · 舞 · 樂 3色音樂會

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로 2008년 첫 무대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傳統의 歌 · 舞 · 樂 3색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 3가지 빛깔의 무대를 구성, 우리음악의 멋과 흥을 살려줄 예정이다. 1부는 궁중음악과 2부는 민속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우리 음악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첫 무대는 편안함이 두루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함녕지곡(咸寧之曲)'으로 연다. 함녕지곡은 관악영산회상 가운데 삼현도드리 이하의 곡에 부분적인 변화를 주어 연주한 합주곡이다. 원래는 삼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까지를 연속 연주하지만 현재 연주되고 있는 형태는 주로 타령에서 끝난다.

함녕지곡에 이어 어우러짐의 미학이 있는 樂이 있는 舞-宮中呈才 '춘앵전'과 樂이 있는 歌-傳統歌曲 '편락, 편수, 태평가' 무대가 이어진다. 춤은 경성대학교 최은희교수가 맡는다. 춘앵전은 조선 순조(純祖)때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모친 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의 40세 탄신(誕辰)을 축하하기 위해 이른 봄날 아침에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피꼬리의 자태를 무용화 한 것이다. 피꼬리를 상징해 노란색의 앵삼(鶯衫)에 화관을 쓰고, 오색 한삼(汗衫)을 양손에 끼고 꽃뫼자리 위에서 혼자 춤을 춘다.

2부 무대는 1부 궁중음악 합주에 이어 민속음악인 시나위연주와 판소리 박초월제 수궁가와 정정렬제 춘향가를 나누어 감상한다. 판소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인 박성희와 정선희가 들려준다. 박성희는 1998년 판소리 '흥부가', 2001년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한 부산의 대표 소리꾼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선희는 지방무형문화재 제 2호 정정렬제 춘향가 전수장학 조교로 2007년 춘향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시나위는 경기도 남부, 충청도 서부,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 지방의 무속음악에서 나온 즉흥성이 강한 기악합주곡이다.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시나위는 보통 굿거리, 자진모리, 엇모리, 동살풀이 등의 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여러 악기들이 비슷한 선율을 연주하되 즉흥적인 변화를 주어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한 선율 진행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유경조



경성대학교 교수 최은희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8 우리춤 산책

1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설장고춤

우리 전통을 살린 창작 작품을 발표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의 얼과 멋이 살아 있는 우리춤 산책으로 2008년 첫 무대를 연다.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우리 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빼어난 춤솜씨와 기량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08 우리춤 산책'은 태평무, 승무, 고성오광대, 진주검무, 산조춤, 설장고춤 등 12가지 우리 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절호의 무대이다.

23일 첫 무대는 김미란 단원의 '춘앵전'으로 연다. 우리나라의 춘앵전은 조선조 순조 때 효명세자(익종)가 순종 숙황후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새로이 지은 향악정재이다. 이번

공연에서 추는 작품은 고종 30년 계사년 흥기에 의해 재현한 것이다. 춘앵전에 이어 권봉정의 '산조 한량무'와 허태성의 '김미란, 안주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중 네번째 과장인 '승무과장', 윤은하, 이현주의 '진주검무', 류권홍의 '훈령무', 장래훈, 서현미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가 차례로 펼쳐진다.

산조한량무는 선비의 춤인 한량무와 여인네의 춤인 합죽선 산조춤을 엮어 만든 춤이다. '진주검무'는 춤사위가 다양하고 칼 쓰는 법이 독특하며 처음에 색한삼을 양손에 끼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훈령무'는 1930년대 故한성준 선생께서 구군의 훈련 장면을 보고 이를 무용화시킨 춤이다. 일사불란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들을 통해 강인한 무적(武的) 기상이 넘쳐난다.

24일 둘째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인 김주연의 '승무'를 시작으로 이정인의 '산조춤' 김동숙, 이현숙, 강미향, 황선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강선영류 태평무', 서정숙 '무당춤', 강모세, 최의욱, 김윤호의 '동래한량무', 김진영의 '설장고춤'이 이어진다. 승무는 선과 하얀 고깔 아래 보일 듯 말 듯한 단아한 정취, 사뻐히 걷는 흰 버선발의 날렵한 움직임이 그 특징이다. '산조춤'은 우조가 갖는 산뜻하고 우아함, 평조가 갖는 안정되고 편안함, 계면조가 갖는 섬세함과 절제가 어우러지는 춤이다. '태평무'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다. '무당춤'은 강신무의 일종으로 '대감놀이' 등에서 발취하여 예술적으로 재구성, 무대화한 춤이다. '동래한량춤'은 겸손, 절제, 정교함이 곁들여진 춤으로 남성춤의 대명사로 꼽힌다. '설장고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남성적인 발놀음과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적인 손짓춤이 특징이다.

■ 입장료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8 신년음악회

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자년 신년의 희망과 설렘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2008 신년음악회가 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명지휘자 크리스티안 슐츠의 객원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첼리스트 여미혜 등 우수한 협연자들이 전 세계 신년음악회에서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인 왈츠와 폴카를 비롯해 협주곡과 교향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신년의 서막을 연다. 2008년 신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는 '왈츠의 왕', 오스트리아 '오페라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의 '박쥐' 서곡을 비롯 폴카 '들뜬 마음' 작품 319, 폴카 '크라펜의 숲에서' 작품 336,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작품 314 등이다.

왈츠와 폴카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객원지휘자 크리스티안 슐츠는 빈의 유명한 음악가문에서 성장한 지휘자로 현재 모차르트 콜레기움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 빈 무지크페어라인의 골든 홀 콘서트 시리즈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찍이 첼리스트로 두각을 나타내며 독주자로도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은 크리스티안 슐츠는 빈의 콘체르 하우스, 무지크페어라인에서 데뷔한 이래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는 활발한 연주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국민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아이만 무사하자예바는 1976년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제노바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1985년 핀란드 헬싱키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1986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등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또 다른 협연자인 첼리스트 여미혜는 예원콩쿠르 금상('78), 이화·경향콩쿠르 1위('79, '81), 서울예고 실내악 콩쿠르 1위('83), 중앙콩쿠르('84) 등 국내 다수의 콩쿠르와 영국 애버딘 국제 챔버페스티벌에서 피아노트리오로 1위, 미국 음악협회의 차세대 연주자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뛰어난 테크닉과 자연스러운 음악의 흐름,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음악성을 소유한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여미혜는 현재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 수석, 콰르텟 노블레스 및 서울 챔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와 첼리스트 여미혜는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가 명 첼리스트 하우스만과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을 위해 작곡한 이중협주곡을 들려준다.



객원지휘자
크리스티안 슐츠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



첼리스트 여미혜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대극장

신년축하 성가의 밤
10일 목요일 오후 7:30



강재권 박미향 김현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축하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 축하 성가의 밤.

소프라노 박미향, 정미순, 김윤희, 테너 김종석, 노주하, 바리톤 강재권, 배웅철, 클라리넷 김현진, 기드온성가단(지휘/연명희), 토브여성합창단(지휘/이일경), 피아노 이현주 등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김두완/여호와와 나의 목자, 주앞에 비제/신의 어린 양
박재훈/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말롯테/주기도문 등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5,000원
문의 강재권(016-9317-4728)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한화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Songs of Hope 희망의 노래

12일 토요일 오후 6:00



1960년 창단된 이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며 한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들려주는 신년음악회.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1978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주최한 세계합창경

연대회에서 동양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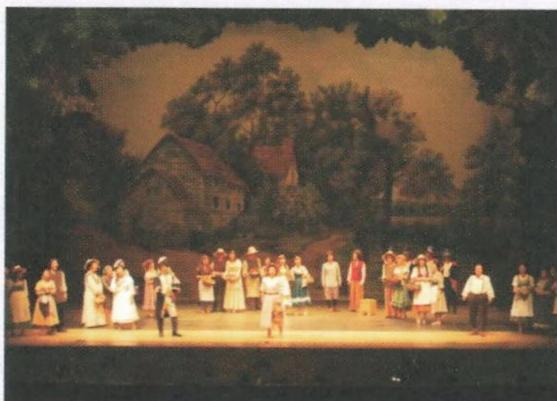
프로그램

이현철/Hope, Peace, Love
즐거운 노래/When I Sing, Happy Songs
We Sing(행복한 노래를 불러요),
Sambalele, 주의 사랑 비칠때
김희조 편곡/한강수타령, 웅혜야 등 수곡
· 지휘/김희철(월드비전음악원 음악감독,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상임지휘)

입장료 초대
문의 월드비전(02-2662-1803, 010-3003-1803)

미래와음악 설립 10주년 특별제작
오페라로 시작하는 새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17일-19일 목-토 오후 7:30



참신한 기획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래와 음악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등장인물 각각의 성격과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속아서 사 마신 청년 네모리노, 사랑의 묘약이라도 마셔 얻고 싶은 사랑스런 여인 아디나, 약장수 둘까마라 등의 주인공이 오페라의 재미를 더해준다.

- 예술총감독/장은익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연출/홍석임(한국예종 외래교수)
- 안무/신은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관현악/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 합창/부산오페라합창단(지휘/이성훈)

출연

박광하, 곽성섭, 박상혁(이상 네모리노)
박현정, 김방술, 고예정(이상 아디나)
박대용, 안영중(이상 벨꼬레)
김도형, 성승민(이상 둘까마라)

고은주, 김원경, 손혜은(이상 자넛따)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미래와음악(242-5231, 018-567-2231)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8회
정기연주회 및 신년음악회
傳統의 歌·舞·樂 3色音樂
23일 수요일 오후 7:30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며 들려주는 신년음악회.

지난해에 이어 '傳統의 歌·舞·樂 3色音樂會'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 3가지 빛깔의 무대를 구성, 우리음악의 멋과 흥을 살려준다.

1부는 궁중음악과 2부는 민속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

宮中音樂 合奏 '함녕지곡'
樂이 있는 舞 '宮中呈才-춘앵전'
樂이 있는 歌 '傳統歌曲-편락, 편수, 태평가'
歌와 歌 '판소리 박초월제 수궁가, 정정렬제 춘향가'
民俗樂 合奏 '시나위'
· 집박/유경조
· 춤/최은희(경성대학교 교수)
· 소리/박성희, 정선희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8 신년음악회
24일 목요일 오후 7:30



크리스티안 솔츠 아이만 무사하자예바 여미혜

무자년 신년의 희망과 설렘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2008 신년음악회.

모차르트 콜레기움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 빈 무지크페어라인의 골든 홀 콘서트 시리즈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명지휘자 크리스티안 솔츠가 객원지휘하고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첼리스트 여미혜의 협연으로 전 세계 신년음악회에서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인 왈츠와 폴카, 협주곡과 교향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신년의 서막을 연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슈베르트/교향곡 제8번 '미완성' 나단조 작품 759

슈트라우스/폴카 '들뜬 마음' 작품 319,
폴카 '크라펜의 숲에서' 작품 336 등 수곡

- 지휘/크리스티안 솔츠
- 협연/아이만 무사하자예바(바이올린), 여미혜(첼로)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8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26일 토요일 오후 7:30



백혜선 정명화 오충근

피아니스트 백혜선(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전 서울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뉴잉글랜드 음악원, 인디애나 음대 교수), 첼리스트 정명화(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한국예종 교수), 첼리스트 윌리엄 드로자(피아티고르스키 첼로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스페인 소피아왕립고등음악원 교수)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2008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하이든/첼로협주곡(첼로/윌리엄 드 로자)
베토벤/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판타지' 작품 80(피아노/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베토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트리플협주곡(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제임스 버즈웰, 첼로/정명화)

- 지휘/오충근(고신대 교수)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www.busanarts.com)

**2008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 콘서트**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 겨울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2008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이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베토벤주제에 의한 6개의 변주곡
슈베르트/피아노 트리오 내림나장조
브람스/현악 6중주 제 1번 내림나장조 작품 18

출연

신수정, 백혜선(이상 피아노), 제임스 버즈웰, 양고운, 이유라(이상 바이올린), 데이빗 퀴글, 이유라(이상 비올라), 정명화, 윌리엄 드 로자(이상 첼로)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081회 MBC목요일음악회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31일 목요일 오후 7:30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 뉴프라임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1081회 MBC목요일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악회 신년음악회.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는 문화 소외계층 및 일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클래식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획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 스트라우스/박쥐서곡
-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 지휘/임준오
- 악장/바이올리니스트 동민 칭
- 협연/김경민(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816-1104, 011-556-7308)

중극장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B-로봇 가브타크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일본 아사히TV에서 방영된 어린이용 특수촬영 프로그램인 B-로봇 가브타크를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로 제작, 사랑과 우정,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9살 소년 수호와의 우정으로 슈퍼 파워 변신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 '가브타크'를 비롯하여 개성있는 다양한 B-로봇들이 등장하여 수수께끼의 돌 '스타피스'를 찾기 위한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진다.

입장료 1층 15,000원 · 2층 12,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이리나 바이올린 리사이틀

18일 금요일 오후 7:30



서울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줄리아드 음대, 영국왕실음악원, 메네스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지난해 8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인 남편 양욱진과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1994년 Young International Artists Competition에서 우승하여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인 뉴욕 데뷔연주회를 가진 이리나는 2004년 뉴욕총영사관 주최로 뉴욕문화원에서 연주하였고, 2005년에는 '노무현대통령 환영음악회'에 초대되어 연주했다.

프로그램

-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2 제 1번
- 쇼송/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시곡' 작품 25
- 비에니아프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라장조 작품 4 등

· 피아노/이지선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CBS 소년소녀합창단
신년음악회

19일 토요일 오후 7:30

1999년 창단,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BS소년소녀합창단 2008년 신년음악회.

CBS소년소녀합창단은 APEC 기념 전국 합창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글로리아, 상투스, 미사곡, 국악곡, 성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정순갑
입장료 초대
문의 김경순(018-553-7855)

2008년 1월 유U; 콘서트
신년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초청
특별연주회

22일 화요일 오전 11:00



박성완



백주영

주부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중심의 낮 공연을 기획, 공연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킨 한 낮의 유U; 콘서트가 20회를 맞아 공연장소를 부산문화회관으로 옮겨 개최된다.

1월 무대는 신년 특집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교수를 초청, 감미로운 선율로 신년을 축하한다.

프로그램

- G. 롯시니/서곡 '도둑까지'
-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 A. 토마/오페라 '미봉' 중 '나는 티타니아'
- 요한 슈트라우스/폴카
-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 현제명/희망의 나라로
- 요한 슈트라우스1세/라데츠키 행진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
 · 바이올린/백주영(서울대학교 교수)
 · 소프라노/한송이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국제신문사(500-5223)

2008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부산음악가의 만남

23일 수요일 오후 7:30



고충진



김경희

세계적인 연주자와 객석의 뜨거운 공감, 짜릿한 감동이 살아있는 부산국제음악제

2008년 무대가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첫무대는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 부산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과 소프라노 김경희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파가니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콘체르타타 가장조

파가니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제 6번

마스네/소프라노와 피아노, 비올라를 위한 가곡

빌라로보스/탱고의 역사 등

출연

백혜선, 윌리엄 드로자, 주희성, 제임스버즈웰, 데이빗 쿼글, 양고운, 기타리스트 고충진, 소프라노 김경희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8 부산국제음악제 제롬 로즈 피아노 독주회
25일 금요일 오후 7:30



세계 각지의 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하는 피아노축제인 국제 키보드 인스티튜트 & 페스티벌(International Keyboard Institute &

Festival)의 창립자이자 감독인 우리시대의 마지막 로맨틱 피아니스트 제롬 로즈 독주회.

20대 초반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제롬 로즈는 게오르그 솔티, 볼프강 자발리쉬, 찰스 맥커러스, 스타니슬라브 스크로바체브스키, 세르주 코미쇼나, 데이빗 진만, 한스 폰크, 로베르트 스파노와 크리스찬 틸레만 등 거장 지휘자와 함께 베를린 필, 뮌헨 필, 비엔나 심포니, 로마 산타 체칠리아, 런던 필 등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30번 마장조 작품 109

슈만/카니발 작품 9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No.31 내림 가장조 작품 110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 1번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6회 에코플룻콰이어 정기연주회
26일 토요일 오후 6:00



2000년 창단된 에코플룻콰이어의 제 6회 정기연주회.

에코플룻콰이어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 플룻 페스티벌, 일본 후쿠오카 초청연주회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헨델/시바의 여왕

모차르트/플룻을 위한 콰르텟 라장조 K.285
모차르트/혼 협주곡 제 3번 내림 마장조 K.447

베토벤/바이올린을위한 로망스 바장조 작품 50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등 수곡

· 협연/박아름, 유현수(혼), 이상진(바이올린, 부산시향 부수석), 신현이

입장료 초대

문의 조진학(017-592-8868)

2008 부산국제음악제 이유라 바이올린 독주회
27일 일요일 오후 4:00



정경화, 장영주의 뒤를 잇는 천재소녀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독주회.

소녀에서 원숙한 음악가로 거듭나고 있는 이유라는 1985년 한국에서

태어나 4살때 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1994년 미국으로 건너 간 이후 줄리아드 음대에서 강효와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하고, 보스톤의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와 폴 비스를 사사했다.

1997년 공영 국영 라디오 방송이 개최하는 'Performance Today'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한 이유라는 2006년 제

2008 부산국제음악제(BMF) **오프닝콘서트** 듀오플러스

초청연주자와 기타리스트 고충진/ 소프라노 김경희 외

기타리스트 고충진

클라리넷 오시 매리

주희성

제임스 버즈웰

양고운

윌리엄 드로자

소프라노 김경희

2008년 1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6회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 수곡
· 피아노/클라비코 마르티네즈 메너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9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7:30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부산출신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귀향연주회.

가곡, 피아노, 하트, 성악전공자 등 6명의 유망주가 출연한다.

프로그램

가곡/계면조 평롱 북두 칠성 하나 둘, 계면조 편수대엽 모란은 화중왕이요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김동진 /수선화

드뷔시/판화 등 수곡

출연

문민주(정가, 한국음악 4년), 이나라(가야금, 한국음악 4년), 김해인(하프, 관현악부 4년) 박성익(소프라노, 성악학부 4년), 신혜지(소프라노, 성악학부 4년), 박수현(피아노, 건반악기과 4년)

입장료 초대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 어머니회(017-541-3445)

2008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김규연 피아노 독주회

29일 화요일 오후 7:30

14세 때인 1999년 바르토크-카발레프스카-프로코피에프 콩쿠르 1위를 수상, 천재소녀 피아니스트로 알려지며 미국 미주리 콩쿠르 2위(2000), 지나 바카우어 영 아티스트 콩쿠르 1위(2001), 제네바 콩쿠르 최연소 특별상(2002), 제7회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2006)를 차지하며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라이징 스타 김규연 피아노 독주회.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 이경숙



교수의 딸이기도 한 김규연은 한국 예종을 졸업하고 커티스 음대에 재학 중이다. 김규연은 '대담한 스케일과 열정적인 음악성이 돋보이는 연

주, 깨끗한 음색과 서정적 깊이가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28번 작품 101

바르톡/피아노 소나타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1권 제 22

라흐마니노프/피아노 소나타 제 2번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김정강 귀국 피아노 독주회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와 추계예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Augsburg 국립음대 연주자 과정, 독일 뮌헨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 연주자 디플롬을 획득한 피아니스트 김정강 귀국 독주회.

김정강은 현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 피아니스트클럽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하/토카타

베토벤/소나타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강(010- 8794-3639)

앵콜 2008 어린이 베스트셀러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 할멈과 호랑이

2월 2일-2월 3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민담으로 내려오는 전래 동화를 노래와 율동이 함께하는 뮤지컬로 제작, 많은 사랑을 받은 어린이 베스트셀러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 할멈과 호랑이' 앵콜 무대.

배우가 부르는 노래의 후렴을 따라하다 보

면 저절로 우리 가락과 구수한 우리 옛 이야기에 빠져든다.

· 작, 연출/오계영

출연

조일영, 오계영, 송판수, 이선화, 정나윤 외

입장료 1층 15,000원 · 2층 12,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소극장

에코주니어 플룻앙상블 연주회

11일 금요일 오후 7:00

플루티스트 조진학의 제자 13명으로 구성된 에코주니어 플룻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비그너/쌍두독수리의 행진곡

도니젠티/소나타

도플러/두대의 플룻을 위한 환타지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조진학(017-592-8868)

부산시립무용단 2008 우리춤 산책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7:30



동래 한량무

우리 전통을 살린 작품을 발표해 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의 얼과 멋이 살아 있는 우리춤 산책으로 2008년 첫무대를 연다.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우리 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솜씨와 기량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08 우리춤 산책'은 태평무, 승무, 고성오광대, 진주검무 등의 중요무형문화재에서부터 훈령무, 산조춤, 설장고춤 12가지 우리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 23일 첫째 날

춘앵전(춤/김미란)

산조한량무(춤/권봉정, 김기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중 '승무과장' (춤/허태성·우정출연/김미란, 안주희·악사/이창규, 김윤희, 류권홍, 최의옥, 강모세)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춤/윤은하, 이현주)

훈령무(춤/류권홍)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춤/장래훈, 서현미)

■ 24일 둘째 날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춤/김주연·뒷장고/김윤희)

산조춤(춤/이정인)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춤/김동숙, 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무당춤(춤/서정숙)

동래한량무(춤/강모세, 최의옥, 김윤희)

설장고춤(춤/김진영·특별출연/남산놀이마당)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김병현 기타 독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유학을 준비 중인 차세대 유망주 기타리스트 김병현의 첫무대.

김병현은 2002년 스페인대사관 주최 전국 콩쿠르 2위, 2003년 한국기타협회 전국 콩쿠르 학생부 2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였고 현재 기타리스트 이판식의 문하생으로 왕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지난 10월 글로벌 아트홀

에서 독주회를 마치고 미국 유학 준비중인 기타리스트 김경태가 Duo in G로 같이 우정 출연하고 2006년 한국기타협회 전국콩쿠르 초등부 1위를 차지한 예현(안락초 2년)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바하/프렐루드 BWV 995

줄리아니/대서곡

카롤리/Duo in G

타레가/알함브라 궁전의 회상

레오 브로우어/11월의 어느 날 등

· 우정출연/김경태

· 특별출연/예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판식(016-437-8483)

뮤클합창단 창단 5주년 기념 음악회
친구들에게, 연인들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2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감상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뮤클 합창단의 창단 5주년 기념무대.

프로그램

우정의노래, 여유있게 걷게 친구, mother of mine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이상훈(010-3135-0423)

전시실

인체의 신비 부산특별전
1월 4일(금)-2월 24일(일)
대전시실



그림이 아닌 실제 인체의 피부 속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며 각 기관들의 실제 위치를 삼차원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체의 신비 부산전시회.

실제 인체 전신 표본 13점과 부분 표본 약 190여점이 운동계통, 소화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 테마 별로 나누어 전시된다.

지금까지 전시되어온 여러 인체 전시와 차별화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표본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2주부터 16단계로 매 과정마다 세밀하게 구분된 태아의 성장과정 표본들과 질병에 걸린 장기표본 전시로 인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 관람시간 : 오전 9:30 ~ 오후 8:30
(오후 7:30 입장 마감)

입장료 성인(대학생포함) 10,000원 청소년(초,중,고) 8,000원
유아(36개월 이상) 5,000원(단체 20인 이상 1,000원 할인, 장애우 50% 할인, 국가유공자, 경로 50% 할인, 해당증명서, 신분증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문의 Y MIX엔터테인먼트(757-9876)

2008 부산국제음악제(BMF)

우리 시대의 마지막 로맨틱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베토벤 소나타의 감동!

제롬 로즈 피아노 독주회

Jerome Rose Piano Recital

베토벤 소나타 No.30, No.31 / 슈만 카나발 / 리스트 메피스토왈츠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790-1000)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7)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사랑과혁명 소극장(751-0858)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화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2일 2008 신년음악회 '권상무 편곡 피아노 음악회'



국내외 가곡 및 영화음악, 팝송, 가요 등을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한 연주곡과 대금연주, 한국무용이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무대.

· 편곡, 지휘/권상무

· 출연/안혜림(바이올린), 정필운(테너), 김영훈(플루트), 이성준(대금), 김정원(한국춤), 예음합창단(지휘/정필운)

■ 9일 Ensemble & Chambers in Busan(21) '실내악과 함께 하는 신년의 선율'

피아니스트 김경민, 첼리스트 장은진, 클라리네티스트 최연주와 성악가 김은정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바위 위의 목동 D.965

프랑크/생명의 양식

글린카/비창 등 수곡

■ 16일 New Musicians in Busan(18) 바리톤 배웅철 귀국독창회

중앙대학교와 이태리 A.Buzzola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배웅철은 이번 무대에서 섬세한 감각과 지적인 해석으로 우리가곡과 이태리 칸초네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호섭/이호섭

김효근/눈

토스티/고뇌

커티스/년 왜 울지 않고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 천벌을 받을 비겁한 자들아' 등 수곡

· 피아노/전현지

■ 23일 설날 특별음악회(1)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실내악의 밤'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부산예중, 부산대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인문계고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부산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실내악



의 밤.

프로그램

천년만세, 가야금중주 '17현 가야금을 위한 단모리 삼중주',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섬집아기', '침밀밀', 거문고를 위한 이중주 '침향무', 사물놀이 등

· 지휘, 해설/홍희철

■ 30일 설날 특별음악회(2) '해금 앙상블 천궁 연주회'

부산대학교 출신의 해금주자 김소현, 박



미경, 백민경, 유영효, 이인경으로 구성된 해금앙상블 '천궁'은 창단공연을 비롯 한·일 문화교류 조선통신사 공연, 해금연구회 정기공연 등 다양

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도드리, 도라지 타령에 의한 '흰꽃', 조명곡, 불인별곡, Early in the Morning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지원
글로벌아트홀 선정 기념

부산시민을 위한 테마음악회
매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예술전용 공간 지원사업 공연장으로 선정된 글로벌아트홀이 매주 일요일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

련하는 해설과 함께하는 테마음악회.

- 6일 피아노 이야기
- 13일 색소폰 이야기
- 20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 중창
- 27일 실내악 이해하기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Happy Music School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교육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제공,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로 양성하기 위한 SK텔레콤 '해피 뮤직 스쿨'이 마련하는 첫 번째 콘서트.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주희성 등과 조현준(첼로), 민혜연(바이올린), 박근태(피아노) 등 '해피 뮤직 스쿨' 재학생들이 출연,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지휘/이대욱(한양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

입장료 초대(happymusic0720@gmail.com으로 신청)

문의 캐주얼클래식(02-515-0720)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을 중심으로 국악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가톨릭센터 PBC 화요음악회.

■ 8일 이상창 플루트 독주회



경성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와 몽골정부 초청 자선음악회, 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플루티

스트 이상창 독주회.

프로그램

도니제티/클라비어와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바흐/소나타 제 4번
줄리아니/기타와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작품 85 등

■ 15일 거문고와 피아노의 행복한 대화하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거문고 주자 권은영과 작곡가 백현주가 함께하는 거문고와 피아노의 행복한 대화하기.

프로그램

김용실/출강
황병기/침향무
백현주/메멘토 모리 등 수곡
· 특별출연/조용석(클라리넷)

■ 22일 실내악시리즈5-동이트리오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동섭,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박병훈으로 구성된 동이트리오 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제 4번 작품 11
슈만/알레그로 작품 8
슈베르트/피아노 트리오 작품 99 D.898
· 피아노슬로/심정연(동의대학교 대학원 재학)

■ 29일 로템 플루트 오케스트라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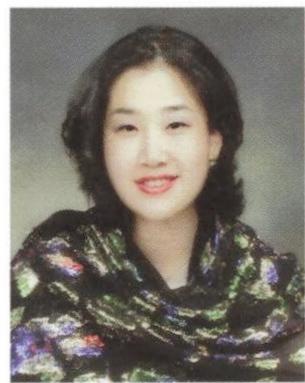
로템 플루트오케스트라 연주회로 마련되는 제 63회 PBC 화요음악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소프라노 민수연 귀국 독창회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이탈리아 L.Perosi 국립음악원, 산타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아, Pescara 아카데미아 오페라 연주자

과정, Ateneo(Sulmona) 국제음악학교를 졸업한 소프라노 민수연 독창회.

민수연은 이탈리아 Teramo 국제콩쿠르, R.Leoncavallo 국제콩쿠르, Taranto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지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드뷔시/만돌린, 베토벤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로드리고/네 곡의 사랑의 마드리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민수연(010-8448-8358)

4인 음악회

1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신라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영나,
강순람, 김태윤, 강봉현이 마련하는 4인 음
악회.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 1번
스크랴빈/소나타 제 2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강봉현(010-9919-6360)

글로벌문화선교회 제 3회 지역주민을 위한 콘서트

20일 일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문화선교
회가 지역 주민들
을 위해 마련하는
콘서트 세 번째 무
대. 테너 박광하,
에드린중창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레
퍼토리를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부산바로크음악축제 김성현 바로크 바이올린 독 주회

2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바로크
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부
산바로크음악축제
첫 번째 무대.

경희대학교와 오
스트리아 비엔나
슈벨트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브릴란트 앙상블 대표, 한국
바로크 앙상블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
올리니스트 김성현이 첼발로 주자 박영은과
함께 바로크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소나타 라장조
코렐리/소나타 제 8번 작품 5
G. B. 폰타나/소나타 5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성현(011-595-6060)

부산바로크음악축제 조진희 리코더 독주회

25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스트리아 빈 국
립음대와 빈 시립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Blockfloeten
Seoul 음악감독,
K.J(Korea-
Japan) 리코더 앙
상블 단원, 춘천 고
음악 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있는 리코더주
자 조진희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와 로맨틱' 이라
는 테마로 카스텔로, 쿠프랭, 웨러, 쇼팽, 몬
티의 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성현(011-595-6060)

2310 키보드아카데미 정기 연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키보드전문학원인 2310 키보드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2310 키보드아카데미(918-3187)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새우리 음악회

3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매주 목요일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를 가져온 새우리신경외과가 6번째로 마련

하는 사랑의 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새우리신경외과(513-9999)

Quartet QueenZ with Pianist-the 2nd step-

3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고 동문으로 결성된 Quartet
QueenZ의 두번째 무대.

프로그램
라벨/현악 4중주 바장조
슈만/피아노 5중주
· 출연/탁서연(바이올린), 정아람(바이올린),
마유미(비올라), 김기량(첼로), 조현
(피아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탁서연(011-9667-0782)

2008 부산국제음악제-교수 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국제음악제 뮤직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초청연주자들과 함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앙상블 무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8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2월 2일 토요일 오후 8:00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국제음악제 전 초청연주자들이 출연,
후원자를 위해 마련하는 디너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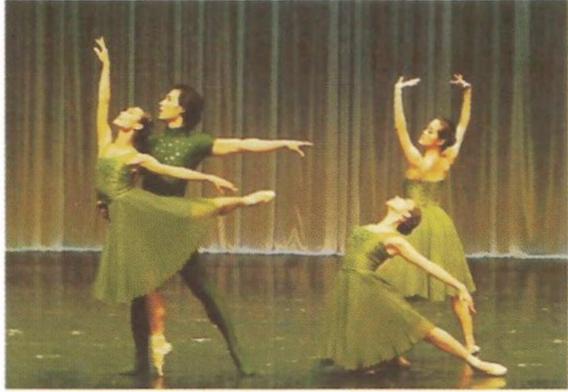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트리오 내림나장조
베토벤/첼로소나타 제 30번 등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무용

고지형 1st Ballet Festival

3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발레리나 고지형의 첫 번째 무대.

해적 3인무, 탈리스만 등 클래식 작품과 프로코피에프, 바흐의 곡에 맞춰 안무한 창작발레를 선보인다.

· 출연/고지형, 김희쟁, 서윤석, 하상미 외

입장료 무료

문의 고지형(016635-0712)

연극

가톨릭센터 무대공감 시즌2

2007년 11월 15일(목)-2008년 3월 15일(토) 가톨릭센터 소극장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다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안공간에서의 역할을 해온 가톨릭센터가 연극, 뮤지컬, 마임, 전통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기획공연.

마임극단 세진, 극단 누리예, 크레이지버드, 남산놀이마당, 배우그룹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펫브리지, 극단 동녘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 및 일정

▶극단 동녘 '바리데기' (1/2~1/3, 1/12 16:00)

▶남산놀이마당 '난장' (1/2~1/3 19:30)

▶배관공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1/17 16:00, 19:30, 1/18 16:00, 1/31 16:00, 19:30, 2/1 16:00, 19:30, 2/2 16:00)

▶펫브리지 'A Love Song' (1/4 16:00, 19:30, 1/5 16:00, 1/10 16:00, 19:30, 1/11 16:00, 1/19 16:00, 19:30, 1/23 16:00, 19:30, 1/24 16:00)

▶마임극단 세진 '지니스토리 BEST' (1/12 19:30, 1/30 16:00)

입장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www.bccenter.or.kr)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4:00, 7:00, 6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대극장

정신병동 한 환자의 실종사건을 둘러싼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아름다운 멜로디로 2006년 한국뮤지컬 대상, 한국연극 베스트7에 선정된 창작뮤지컬.

· 작, 연출/장유정 · 작곡/김혜성



· 출연/원종환, 김수정, 안세호, 박훈, 이재경, 이미영, 박란주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극연구집단 시나위 10주년 기념공연

시나위 소극장 프로젝트 시즌 1

Mother

1월 10일(목)-2월 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서로 사랑하면서도 매 순간 부딪히며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 연출/오정국

· 출연/김혜정, 김성경, 백상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시나위 공연기획단(554-5244)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2008년 상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1월 11일(금)-2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2/8일 오후 3:00,
6:00(월요일, 2/6일~2/7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노총각과 노처녀, 전라도 부부, 버릴 수 없는 사랑, 러브 스타트, 할아버지 할머니 등 10대부터 60대까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 작, 연출/위성신
- 작사/문희 · 작곡/송시현
- 출연/김문성, 박정희, 김소연, 유명상, 오의식, 박은미

입장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코메디 클럽에서 울다

1월 19일(토)-3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2/6일~2/7일 공연없음, 2/8일 오후 6:00 공연)
공간소극장



사람을 웃겨야만 살 수 있는 3류 개그맨 조덕배의 인생을 통해 눈물나는 감동적인 코메디를 선사하는 '코메디 클럽에서 울다' 앵콜공연.

- 작/김태수 ·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권철, 이현욱, 성경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평일 20%, 주말 · 공휴일 1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명성황후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의 가슴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창작뮤지컬로, 1995년 초연된 지 12년만인 2007년 3월 총관객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원작/이문열 · 연출/윤호진

입장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VIP 90,000원 · R석 8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40,000원)

문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아 동 극

비보이 가족뮤지컬 비보이 동산의 백설공주

1월 15일(화)-2월 3일(일) 오전 11:00, 오후 2:00(토요일 오후 4:00 공연 추가, 21일~24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명작동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가 비보이들의 역동적인 춤으로 새롭게 태어난 국내 최초 비보이 가족뮤지컬.

- 연출/전영준
- 출연/최우영, 이진희, 장미, 선미경, 김평주, 이재섭, 오용환, 정은영, 최종관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와이믹스엔터테인먼트(757-9876)

갈갈이 박준형의 후크선장과 띠보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 부산홀



길잃은 별동별 띠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 에밀리오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통해 친구간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어린 이유지컬.

개그맨 박준형이 띠보와 에밀리오의 모험을 방해하는 후크선장으로 등장으로 등장해 재미를 더해준다.

- 출연/박준형, 윤아름, 전나현

입장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000원 할인)

문의 KNN(1577-7600)

어린이 캐릭터뮤지컬 보글보글 스폰지밥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캐릭터 뮤지컬로 제작한 '보글보글 스폰지밥'.

- 출연/고광희, 이근식, 이동희, 이광욱, 이지은, 노민아, 고예슬, 김병식

입장료 균일 12,000원
(전화예매시 2,000원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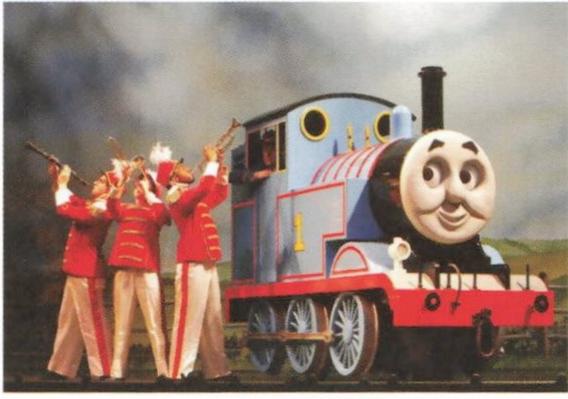
문의 즐겨찾기(1544-9135)

브로드웨이 가족뮤지컬 토마스와 친구들 한국투어

8일-10일 화-목요일 오후 2:00,
5:00 KBS 부산홀

1945년 영국에서 출간된 도서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전시, 뮤지컬로 제작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토마스와 친구들'.

기관차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펼쳐



지는 신나는 모험과 우정, 환상적인 무대가 볼거리를 더해준다.

- 작, 연출/짐 밀란
- 출연/김도신, 이지수, 홍관표, 서태이, 박은희, 신금숙, 김유미, 김영훈

입장료 R석 45,000원 · A석 3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따라해요~봄치키분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1:00, 3: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3~6세 유아들의 성장에 필요한 율동과 노래로 구성된 유아용 뮤지컬.

- 작/박수경 · 연출/조재국
- 음악/최병일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주)아트노우(1544-2972)

가족 매직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이 화려한 마술로 바뀌는 뮤지컬과 마술이 접목한 색다른 형식의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
(전화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즐겨찾기(1544-1718)

영어뮤지컬 열두 동물 이야기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1: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어연극 전문극장인 라트어린극장이 선보이는 두 번째 창작 영어극.

장난꾸러기 토끼 때문에 화가 난 용이 세상을 지켜주는 여의주를 깨뜨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펼쳐진다.

- 연출/Roser Rynd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주)유니북스(02-5600-999)

가족뮤지컬 피터팬

25일 오전 11:00, 오후 3: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터팬과 팅커벨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신나는 재즈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연출/윤여성
- 출연/정영우, 이성하, 백재우, 최세웅, 박은진, 김민정, 박시내, 유영애, 최선근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독일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를 뮤지컬로 제작한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눈나쁜 두더지가 머리 위에 떨어진 똥이 누구 것인지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과정을 재미나게 그렸다.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빨간모자와 음흉한 늑대

2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집에 가게된 빨간모자가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숲속으로 가다가 늑대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가족뮤지컬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탈 인형이 재미를 더해준다.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까스 ₩6,000원(디저트 포함)
- ★따끈따끈 단팔죽+녹차 ₩5,000원(겨울별미)
- ★원두커피+쿠키 ₩3,5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콘서트

우창수 1집음반 '빵과 서커스' 발매기념 콘서트

27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삶을 노래하는 가수 우창수의 창작곡 1집 음반 '빵과 서커스' 발매를 기념하는 콘서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우창수(016-483-7018, woo.communeart.net)

나나 무수쿠리 내한공연

26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가수 나나 무수쿠리 내한공연. Try To Remember, 사랑의 기쁨, 러브 스토리 등 드라마, 영화 주제곡으로 친숙한 히트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VIP 190,000원 · R석 16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5% 할인)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1544-7566)

행사

2007 눈내리는 산타마을

2007년 12월 7일(금)-2008년 1월 2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전시홀에 내리는 인공 눈과 흥겨운 캐럴, 신나는 퍼레이드와 함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상적인 불빛을 밝힌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입장료 균일 10,000원(단체 예약시 8,000원)
문의 (주)뉴페이스컴(740-7550)

2007 얼음나라축제

2007년 12월 14일(금)-2008년 1월 29일(토)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9:00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엠씨티씨(816-9731)

벅스코 뉴 키즈랜드

2007년 12월 19일(수)-2008년 3월 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40여종의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과학적인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테마 공간인 특별 체험 Zone 등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놀이공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입장료 균일 11,000원
문의 (주)씨앤제이엔터테인먼트(740-8800)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

2007년 12월 22일(토)-2008년 2월 1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와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 탄탄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체험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입장료 어른 10,000원 · 어린이 1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현장구매시 카드제시)
문의 SPA엔터테인먼트(1544-1555)

2008 해맞이 부산축제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1:00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시민의 종 타종식과 무자년 해맞이로 펼쳐지는 2008 해맞이축제.

· 12/31(화) 23:00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타종식'

송년음악회, 송년대합창, 타종식, 풍물공연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1/1(수) 6:20 해운대해수욕장 소방악대의 관악대합주, 부산시립무용단 '백두대간 등 식전 축하공연과 해상선박퍼레이드, 헬기축하비행, 해맞이 풍경 시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와 새해소망적기, 소망풍선날리기, 연날리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888-3392~6, www.festival.busan.kr)

롤링볼 뮤지엄 부산특별전

2007년 12월 20일(목)-2008년 2월 10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공을 레일 형태의 길에 굴러가도록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Kinetic Art)인 롤링볼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테마박물관인 롤링볼 뮤지엄 부산전.

입장료 균일 12,000원(유아 10,000원)
문의 (주)벨루션(1588-7417)

LADIES VALENTINE

레이디스 발렌타인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레이디스 발렌타인에서
음악과 함께 생애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 일시 : 2008년 2월 14일(목) 19: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eunice2379@naver.com으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공연장에서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커플 선정)

레이디스필 앙상블 특별연주회



전시

부산근대역사관 제 3회 특별교류전 열 두 상자와 떠나는 화폐여행

2007년 12월 11일(화)-2008년 2월 10일(일) 부산근대역사관

어린이들이 돈의 가치와 쓰임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화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삼성어린이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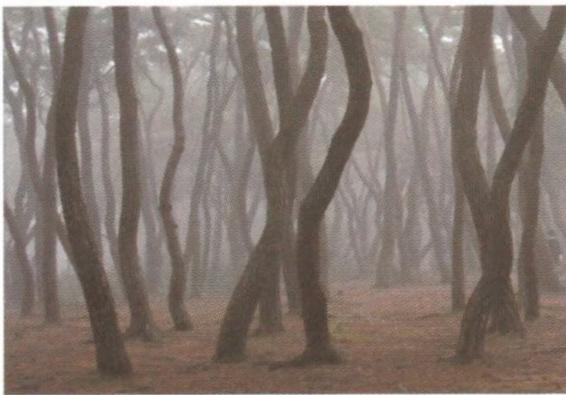
· 관람대상/유치원, 초등학생

입장료 무료(30명 이상 관람시 예약 필수)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6)

영광문화원 창립전 그림여행

2007년 12월 31일(월)~2008년 1월 27일(일) 영광도서갤러리



· 참여작가/설임숙, 류광춘, 김하정, 최영덕, 박정용, 주선포, 허옥희, 김보경, 박옥희, 문오순, 조용규, 이수환, 이영아, 김양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백제의 미, 그 아름다움의 절정

2007년 12월 21일(금)-2008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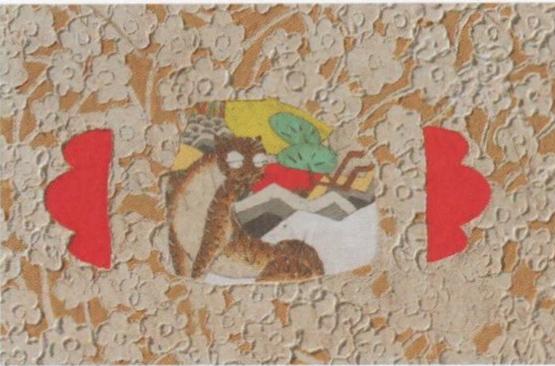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7 - 박미경, 박자현, 배지민, 이원주

2007년 12월 21일(금)-2008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구본호 개인전 '오래된 그림 일기'

2007년 12월 21일(금)-2008년 1월 20일(일) 부산아트갤러리



문의 부산아트갤러리(516-8722)

서양화 10인전

1월 3일(목)-1월 15일(화)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9th 경성전통복식연구회 작품전, 그 아름다움 속으로...

1월 8일(화)-1월 13일(일)

시민회관 제 1전시실

잊혀져 가는 전통복식을 전승, 발전시켜 한복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한복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성전통복식연구회 9번째 작품전.



문의 변현실(011-586-1156)

타워현대여성작가전

1월 17일(목)-1월 31일(목)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1월 19일(화)-2월 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감성적인 글과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사진작가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이세훈展

11월 21일(월)-2월 4일(월)

김재선갤러리, 부산아트센터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부산아트센터(461-4558)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 정기회원소식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1/17(목)-1/19(토) 19:30	미래와 음악 창립 10주년 기념 '사랑의 묘약'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미래와 음악 (242-5231)
	1/22(화) 19:30	유U:콘서트	균일 15,000원	10%	국제신문사 (500-5223)
	1/23(수), 1/25(금)~1/27(일), 1/29(화)~1/30(일) 19:30	2008 부산국제음악제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26일,30일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29일 균일 20,000원)	10%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2/14(목) 20:00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10%(1인 4매)	올리브엔터테인먼트 (1588-4430)
시민회관	1/20(토) 15:00, 19:00 1/21(일) 14:00, 18:00	뮤지컬 '명성황후'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	VIP 90,000원 · R석 8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	(주)Knp엔터테인 먼트(1599-8879)
KBS부산홀	1/5(토) 11:00, 13:00 1/6(일) 11:00, 14:00	갈갈이 박준형의 후크선장과 띠보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5,000원 할인	KNN (1577-7600)
	1/8(화)-1/10(목) 14:00, 17:00	가족뮤지컬 '토마스와 친구들'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1/26(토) 19:30	나나 무수쿠리 내한공연	VIP 190,000원 · R석 16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15%	소리엔터테인먼트 (1544-7566)
가마골소극장	1/11(금)-2/17(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2/8 15:00, 18:00(월요일, 2/6~2/7 공연없음)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균일 2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부산시립예술단 예매처가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부터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예매하
실 수 있습니다. 티켓링크 콜센터 1588-7890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Recommended Performances in January

2008, New Year begins with the famous Opera 'L'elisir d'amore'

16th(WED) January - 18th(FRI)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the Mirae & Music performs the famous Opera 'L'elisir d'amore'. The Gaetano Donizetti's masterpiece is one of the most popular opera in the world. Don't miss the chance to enjoy it!

- General Music Director/Jang Eun-Ik
- Director/Hong Seung-Yeong

For more information:242-2231

The Last Empress

19th(SAT) January 3:00 p.m. & 7:00 p.m.
20th(SUN) January 2:00 p.m. & 6:00 p.m.
Busan Citizen's Hall, Grand Hall

'The Last Empress' is an historically accurate portrayal of the fascinating life of Korea's beloved Queen Min. We can witness the history turned into a fine art. Last March, the musical recorded exceeding total audience number of One million since its first performance in 1995.

Tickets: VIP-99,000Won, R-88,000Won, S-77,000Won, A-55,000Won, B-44,000Won

For more information:1599-8879

2008 Busan Music Festival

23rd January~3rd February Busan Cultural Center, Haeundae Cultural Center, Paradise Hotel Busan

The international music event 'Busan Music Festival 2008' raises its curtain by giving an Opening Concert. The event is a festival of chamber music with the world-renown musicians and players. The venues are gathering places of passionate audiences and performers. Come and feel the joy!

■Festival Concert of Invited performers of BMF and Local Musicians

23rd(WED)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Local Musicians of Classic Guitarist Go Chung-Jin and Soprano Kim Kyeong-Hee and invited performers of BMF stage special concert for you!

- Invited performers of BMF:Paik HaeSun, William de Rosa, Joo HeeSung, James Buswell, David Quiggle, Yang KoWoon
- Local Musicians: Guitar-Go Chung-Jin, Soprano Kim Kyeong-Hee

■Jerome Rose Piano Recital

25th(FRI)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Last Romantic' Pianist Jerome Rose will give you a piano recital in Busan! Jerome Rose, hailed as 'the Last Romantic of our own age' and 'one of America's most distinguished

pianists,' will present a guest recital at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Music Festival with Busan Symphony Orchestra

26th(SAT)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Busan Music Festival's star musicians including Pianist Paik, Hae-Sun, Violinist James Buswell, Cellist Chung Myung-Wha, Claudio martinez Mehner and Busan Symphony Orchestra co-performing the concert!

- Orchestra/Busan Symphony Orchestra
- Conductor/Oh Chung-Keun

■Lee Yu Ra Violin Recital

27th(SUN) January 4:00 p.m. Busan Cultural Center

■Rising Star Kim Kyu-Yeon Piano Recital

29th(TUE)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In 1999, Kim Kyu-Yeon won the first place of the Viktor-Kabalevskii-Prokof'ev Concours. Since then Kim became a rising star flying over the world for a concert.

■Finale Concert

30th(WED)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Busan Music Festival let down the curtain with the Finale Concert.

- Piano/Sin SooJung, Paik HaeSun
- Violin/James Buswell, Yang KoWoon, Lee YuRa
- Viola/David Quiggle, Lee YuRa
- Cello/Chung Myung-Wha, William de Rosa

■Concert with Masters and disciples

1st(FRI) February 7:30 p.m. Haeundae Cultural Center

Students from the Music Academy stage an ensemble with their professors and invited performers of BMF.

■Dinner Concert

2nd(SAT) February 8:00 p.m. Paradise Hotel Busan

All participants of BMF give special dinner concert.

For more information:747-1536

2008 New Year's Concert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4th(THU) January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For the Year of Mous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elebrates the new year with full of hopes and wishes and performs a concert with Waltz, Polka and various other concertos as the concert main repertoires.

Program

J.Strauss II /Overture to 'Die Fledermaus'
J.Brahms/Double Concerto in a minor op.102
J.Strauss II /Polka, 'Leichtes Blut' op.319 etc.

- Conductor/Christian Schulz
- Violin/Aiman Mussakhajayeva
- Cello/Mee Hae Ryo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information:607-6101

뮤지컬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뮤지컬 작품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라이센스도 그렇구 창작 뮤지컬도 많이 선 보였다. 올해에도 여전히 그 여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장의 과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로 다소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에 소개가 되지 않은 작품이 여럿 있는데 그중 으뜸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작품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새해 첫 연재물로도 손색이 없는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1993년, 1997년 두번의 한국어 공연이 있었다. 이 중 1997년 공연은 부산에서도 공연이 되었고, 2000년 즈음 오리지널팀의 내한공연도 두차례 있었다. 다만 두번의 한국어 공연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고, 내한공연 역시 뮤지컬이 활성화 되기 바로 직전이라 지금의 관객들에게는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미스사이공'을 만들었던 두 콤비 끌로드 미셸 쇤베르그와 알랭 부블리가 사실 첫 호흡을 맞추어 세기의 성공을 거둔 뮤지컬이 바로 이 작품이다. 게다가 캣츠에서 연출력과 무대미술을 보여준 트레버 넌, 존 내피어가 크리에티브 팀으로 참여하며, 이 모든게 카메론 매킨토시 사단 하에 드림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모국인 프랑스에선 오히려 흥행에 실패, 영미권 그리고 이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건 영어 작사가 허버트 크레츠머의 공이 크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영어가사를 음미해 보면 그 은유와 반복이 Song Through 뮤지컬이라는 쉽지 않은 형태에 아주 절묘하게 녹아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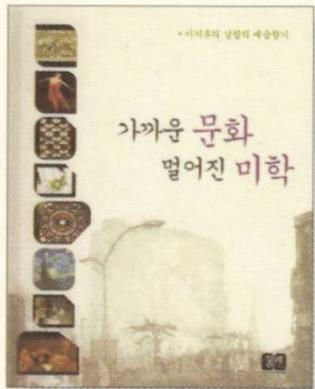
최근 '노트르담드 파리'가 불어권에서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소설 두 작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마 시대와 장소를 넘나드는 인간사의 보편적인 주제를 여러 캐릭터에 소화시킨 점이 뮤지컬의 대작 두 편을 만든 것 같다. 이민자 문제와 미혼모, 계층과의 갈등 등은 이시대에도 통용되는 공통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잘 아는 빵 한조각에 19년간 옥살이를 하는 장발장의 이야기는 7~8분의 프롤로그 한곡에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Les Miserables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후 여생을 주교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발장의 삶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다음세대인 코제트와 마리우스 에포닌 이들에게 각각의 운명을 준다.

비련의 주인공 환틴느, 원칙주의자 자베르, 악하지만 밍지 않은 떼나르디에 부부 등 각기의 개성있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유명한 I Dreamed a Dream, Stars 등의 노래로 뮤지컬 속에서 절묘하게 표현된다. 특히 에포닌이 부르는 On my Own과 전 출연진이 제창하는 One day More,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은 뮤지컬을 넘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넘버이다. 작년 2007년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극단 토호에서 레미제라블 초연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많은 뮤지컬 팬들이 기다리는 작품 레미제라블. 최고의 작품은 마지막에 온다는 한 선전의 카피처럼, 올해는 무대에서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가까운 문화 멀어진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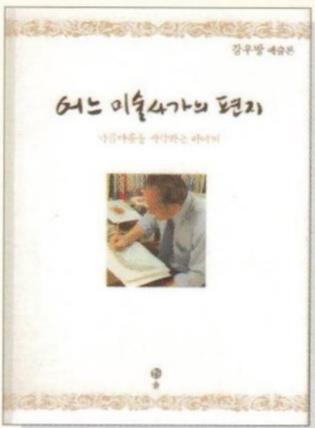
이지훈 지음 / 물레 / 231p / 12,000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이자 미학자 이지훈 씨가 동서고금의 예술사와 예술의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오늘의 미학이 서야 할 자리를 탐색한다. 음악 발레 건축 회화 놀이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동서양의 문화를 물 흐르듯 드나드는 예술철학 에세이를 묶어 책을 펴냈다. 지난 2004년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가까운 문화 일상의 미학>을 다시 다듬어 낸 것이다. 저자는 “문화가 과잉되면서 오히려 미학이 멀어지거나 예술 속에서 길을 잃을 우려도 높아졌다. 예술에서 고통은 원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에 파묻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 예술에서 상처의 대가(大家), 고통의 대가들은 많지만 치유의 대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예술과 미학이 살림과 생명으로 가야 한다”고 이 책 밑바탕의 주제의식을 밝혔다.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예전보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달리 생각하면 문화와 예술에 우리가 포위돼 버린 세상이기도 하다. 미학개론서가 아니지만, 미학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다.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

강우방 지음 / 솔 / 494p / 40,000원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가로 손꼽히는 강우방 선생의 저서.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열화당 1999), <미의 순례>(예경 2001),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열화당 2004)에 이은 저자의 네 번째 예술론집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저자의 예술론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신라 불교미술과 석굴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며 지난 40여 년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경주국립박물관 관장 등 문화유산 유물의 현장에서 미술사 연구에 전념해온 자신의 학문적 변화과정과 심경의 변화를 세세히 드러내면서 끝없는 시행착오와 독자적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서양문화의 관점에서 동양문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온 그는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격하되어왔던 ‘고구려’의 조형미술에 주목한다. 작가는 그리스나 중국은 물론, 더 넓게 동서양이 모두 같은 우주관과 인생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역사가 긴 조형예술의 올바른 보존과 해석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탁월하고 독창적인 한국 문화 예술 읽기’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

케네스 벤디너 지음, 남경태 옮김 / 323p / 18,000원



음식이란 친근한 소재에 발을 굳게 디디고 있는 재미있는 문화사론. 초기 르네상스 이후 유럽과 미국의 음식 그림들을 연구하면서, 음식 회화를 자체의 역사를 지닌 별도의 장르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회화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의 생활사, 신분제, 종교 의식, 성 의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저자의 박식함 덕에 지루할 새 없이 흥미롭게 읽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그림 속 작은 음식 하나에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브뤼헬, 렘브란트, 샤르댕, 마네, 워홀 등의 유명 작품들과 아울러 그보다 덜 알려진 많은 화가들의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한다. 철학, 역사, 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 계급과 시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 문화와 관념의 변화추이를 미시사적 관점에서 절묘하게 짚어낸 이 책은 인문학과 예술의 광범한 분야를 넘나들며 교직의 독보적 저작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서양 미술사의 통상적인 사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작품들을 분류해 보면 오히려 진실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새해맞이 장식탑 점등, 포토존 설치

- 12월 18일(화) 17:30,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에서 새해맞이 장식탑 점등식 개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12월 18일 부산 시립합창단 공연에 앞서 오후 5시 30분 중앙광장에서 '2008년도 새해맞이 장식탑 점등행사'를 개최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과 이종철 남구청장,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등 주요 기관장과 시립예술단원, 지역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점등식 행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단 연주와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함께 열렸다.

부산도시공사 협찬으로 제작된 장식탑은 높이 9.8m, 폭 2.4m에 은하수 등 1천 5백 조를 삼면으로 배치, 전면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측면에는 'HAPPY NEW YEAR', 후측 면에는 '謹賀新年' 등 새해를 맞는 인사말 등으로 꾸며졌다.

2008년 무자년 부산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부산문화회관 새해맞이 장식탑은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이 부산 문화의 본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부산문화회관 전 직원과 예술단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개관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장식탑은 내년 2월 8일까지 53일간 매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을 밝힌다. 크리스마스과 새해 첫 날, 설날에는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점등시간을 연장, 부산 문화를 밝히는 등불로 불을 밝히게 된다.

이번 점등식과 아울러 대극장 로비에는 연말 공연장을 찾는 가족들을 위해 포토존을 설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로고 확정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이 21세기 부산문화 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를 제작, 의욕적인 신년을 맞는다.

2008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비롯 예술단의 각종 공연 홍보물에 20주년 기념 로고를 사용할 예정이다.



- 부산문화회관이 우리 사람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주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둥근 원형에 주황의 활력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하였으며
- 중앙에 20이라는 숫자를 파랑과 흰색으로 배색하여 개관 20주년임을 알리고
- 전체적으로 21세기 부산문화 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부산문화회관의 이상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한-대만 우호증진을 위한 대만순회연주회 개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지휘/이동신)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의 초청으로 한-대만 우호증진을 위한 대만순회연주회를 위해 대만 연주길에 올랐다.

24일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을 출발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5일과 26일 부산의 자매도시인 대만 까오슝과 타이중에서 두 차례 연주회를 가진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대만순회연주회 타이틀은 'Harmony from the Young Korea'.



25일 오후 2:30 타이중 지방행정연수원(340석)에서 열리는 첫날 연주는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앙상블을 구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캐롤송과 모차르트와 바흐, 멘델스존의 감미로운 현악 4중주, 목관 5중주곡의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이번 순회연주회의 메인공연이 될 26일 까오슝 현 근로자문화센터(1800석) 연주회에서는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협연으로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베토벤 교향곡 제 4번을 들려준다.

제 1기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생 모집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 향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8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 1기 시민클래식교실'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습기간 : 2008. 1. 30(수)~3. 26(수) 매주 수요일 14:00~17:00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강사/이동신)
 - 1/30 음악감상의 시작;멜로디의 비밀 · 2/13 음악에서의 통일성과 다양성;변주곡
 - 2/20 음악형식의 완성;소나타 형식 · 2/27 소리의 마술사;관현악법의 매력
 - 3/5 보편적 아름다움의 미학;절대음악과 고전파시대
 - 3/12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표제음악
 - 3/19 무대 예술의 결정체;오페라 I · 3/26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오페라 II
- 모집인원 : 60명 ■수 강 료 : 30,000원
- 신청기간 : 2008. 1. 14(월)~1. 18(금)(5일간)
- 접수 및 문의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제 29기 시민무용교실

춤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 29기 시민무용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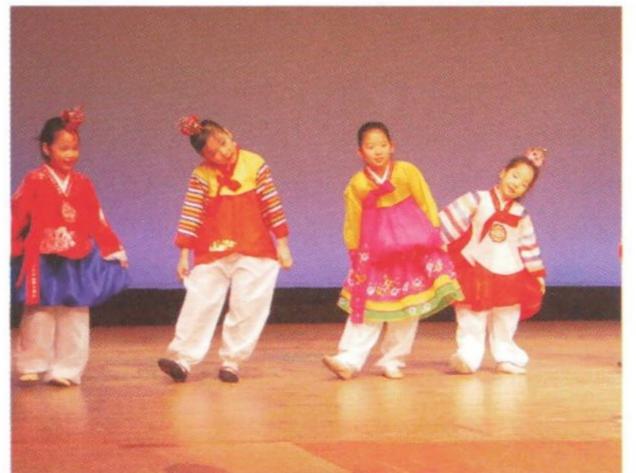
- 강습기간 : 2008. 1. 14(월)~1. 18(금) 13:00~17: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태평무(13:00~15:00), 부채춤(15:00~17:00)
- 강습발표회 : 1. 18(금) 13:00~14:00 국제회의장
- 강 사 : 태평무 -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김동숙(단원)
부채춤 - 김주령(부수석), 이정인(단원)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30명)
- 준 비 물 : 태평무 - 북채 1쌍, 한삼 1쌍 / 부채춤 - 부채 1쌍
- 수 강 료 : 20,000원



▣ 제 18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우수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춤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습기간 : 2008. 1. 14(월) ~ 1. 18(금) 10:00~12: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인형춤(10:00~11:00), 팽이놀이춤(11:00~12:00)
- 강습발표회 : 1. 18(금) 13:00~14:00 국제회의장
- 강 사 : 인형춤 -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김동숙(단원)
팽이놀이춤 - 김주령(부수석), 이정인(단원)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 (각 반 30명)
- 준 비 물 : 인형춤 - 얼굴만한 곰인형 / 팽이놀이춤 - 팽이와 채
- 수 강 료 : 10,000원



※접수기간 : 2008. 1. 2(수) ~ 1. 10(금) (5일간) (평일 9:00-18:00)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 (Tel: 051-607-6118, 6120)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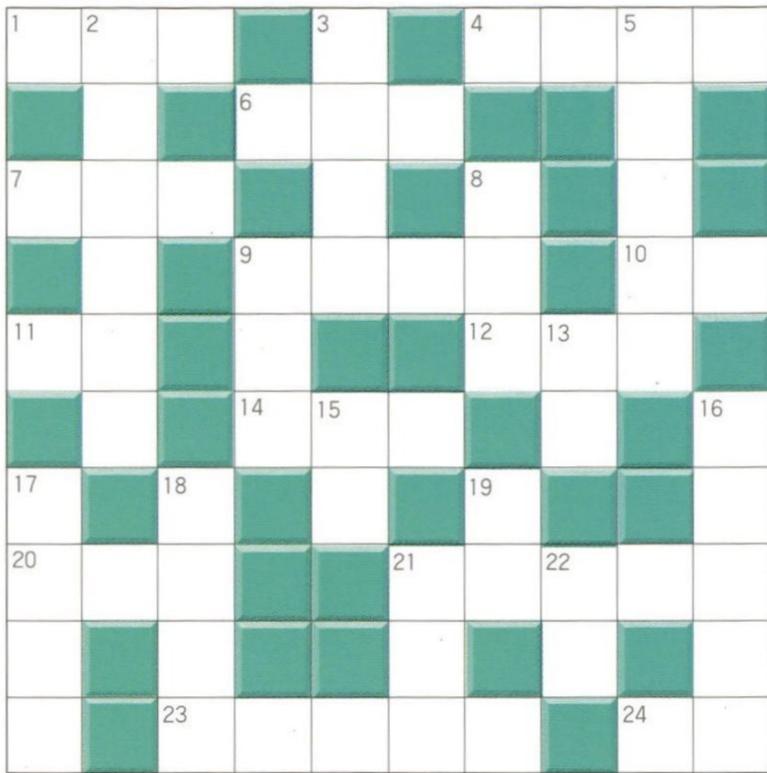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어브병원·암센터전문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흥회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암예방검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가로문제

- 2007년 정해년, 2008년 ○○○.
-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
- 미국 하와이 오아후(Oahu) 섬에 있는 만. 일본의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 서울과 신의주 사이를 잇는 철도. 1906년 4월에 개통되었으나, 국토분단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문산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렸다.
- 뽕나무 잎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9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9회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경기.
- 어느날 벌레로 변해버린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독일작가 카프카의 대표작.
-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곳으로,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팔아 이곳에 빠졌다.
-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예능보유자.
- 고대문명 발상지로, 16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으며 오

- 늘날 아랍과 중동지역에서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을 이루는 국가.
- 지상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일정한 레일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 궤도열차.
- 조선시대 민요. 담배에 대하여 노래한 것으로, 도드리장단에 의한 단조로운 가락이 반복되는 곡조이다.
- 흑인이자 시각장애인으로 당당히 세상의 편견과 맞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미국 팝음악계의 전설적인 뮤지션 레이 찰스의 삶을 그린 영화. 주인공 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제이미 폭스가 이 영화로 2005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세로문제

- 1884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기증한 높이 약 46미터의 거대한 상(像)으로, 미국 뉴욕시 허드슨강 어구의 리버티 섬에 있다.
-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용궁에 간 토끼가 잔꾀를 부려 도망쳐나온다는 내용의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
-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와 아름다운 소녀의 사랑을 그린 L.보몽 원작의 동화로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첫 시집 '민들레 영토'로 문단에 등단한 후 일상과 자연을 소재로 하는 친근한 주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수녀 시인.
- 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 일제시대 당시인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곳에서 조직되어 1932년 5월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로 옮기기까지 활약했던 곳이기도 하다.
- 여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한복의 하나. 앞길과 뒷길이 저고리보다 길고 도련은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옆은 진동선 아랫부분이 트여 있다.
- 추위가 가지지 않은 이른 봄, 은은한 향내와 함께 시든 가지에 피는 모습이 선비의 기개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사군자 중 으뜸으로 쳤던 꽃.
- 그룹 비틀스가 1965년에 발표한 노래로, 포퓰러뮤직 사상 최고의 레코딩 기록과 함께 전세계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사랑받는 곡.
- 가운데가 잘룩한 타원형의 몸통에 네 줄을 매어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서양 현악기. 음역이 넓고 음색이 순수하고 화려하여 독주, 실내악, 관현악 따위에 널리 쓰인다.
- '우리들의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를 이르는 말. 가톨릭 성당의 이름으로 널리 쓰였는데, 파리에 있는 것이 유명하다.
- 미국의 화폐단위.
- 소련 태생의 미국 소설가 나보코프의 대표작. 소설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을 따서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콤플렉스를 ○○○콤플렉스라고 한다.
- 이슬람교의 경전. 이슬람교도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을 서술하고 있다.

지키표 정답

신	사	임	당	조	삼	모	사
드	권	취	국	천	지	창	조
롬	택	호	교	지	수		
호							
용	두	산	공	원	알	타	미
라	까	쿠	레	트			
서	기	르	네	상	스	헤	라
인			버	카	툰	비	
임	형	주	랜			아	
화			오	드	리	해	번
							타

- 큰집 식사권**
김성호(금저구 부곡2동)
김명희(수영구 망미1동)
이종현(남구 대연3동)
이승현(연제구 거제 1동)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이순이(사하구 당리동)
우향화(사하구 다대동)
이예랑(남구 용당동)
유지현(남구 용호1동)
노은영(양산시 북정동)
- 필하모니 식사권**
양윤경(연제구 연산9동)
남선현(남구 문현1동)
최옥자(북구 화명동)
이민정(사하구 당리동)
김사라(연제구 거제3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이상호(북구 금곡동)
백영경(사상구 덕포2동)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김양성(수영구 광안4동)
양윤정(부산진구 연지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Sin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20~80명)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아는 만큼 보인다-경주 다시보기!



“40년 만에 찾은 경주라 마음이 설레요, 꼭 수학여행 온 기분이에요.”

12월 14일 경주로 떠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난 뜻 깊은 시간. 오전 9시 10분,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정기회원 가족 일행은 10시 30분 경주국립박물관에 도착해 문화유산 해설사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 여행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경주를 찾은 중년 회원의 모습에서부터 어머니와 동행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둘러보았다.

특히 천년 세월동안 변함없는 소리로 세인의 심금을 울려주는 국보 제 29호 성덕대왕신종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와 신라사람들의 우수한 기술, 찬란한 문화에 모두 탄성이 쏟아졌다. 성덕대왕신종의 다른 이름은 에밀레종, 봉덕사종. 에밀레종은 아는데 성덕대왕신종과 봉덕사종을 몰랐던 회원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수업이 시작되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경주의 명물 순두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찾은 곳은 천마총과 경주의 상징 첨성대.

“첨성대는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 증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7대 선덕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기단부 위를 27단으로 쌓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회원들은 첨성대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에 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답사 이후 해누리체험관에서 부산시립극단 황창기, 이혁우가 정기회원들을 위해 연극 ‘달빛소나타’ 공연을 펼쳤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를 배운 12월 경주여행. 해누리체험관에서 은목걸이, 은귀걸이 만들기 체험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부산시립예술단 테마여행 협찬/(주)레임 투어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08년 새해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2008년 2월 15일(금) 청도로 떠나는 겨울 여행

청도로 떠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체험하는 딸기따기와 청도의 명물 감와인 터널 속에서 감와인과 함께하는 색다른 시간.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청도 딸기따기 체험
- ▷ 12:00 중식
- ▷ 13:30 청도 와인터널 감와인 시음 및 작은음악회
- ▷ 16:00 청도 와인터널 출발
- ▷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2008년 3월 14일(금) 역사의 고장 창녕 속으로!

예향과 충절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창녕으로 떠나는 이른 봄 여행.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창녕 도착
- ▷ 10:30 창녕박물관-고분군-만옥정공원-석빙고 답사
- ▷ 12:00 사리 옥천마을 도착, 중식
- ▷ 13:00 사리 옥천마을 팜스테이에서 전통 음식 체험
- ▷ 17:00 부산출발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월 당첨자

▶ 1월 11일(금) 밀양 미리벌 민속박물관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구가입 당첨자(10명)

강양미(해운대구 반여1동)
곽정희(해운대구 재송1동)
서동수(남구 용호2동)
우성광(남구 대연4동)
배은정(연제구 연산5동)
임미숙(금정구 청룡동)
이인호(서구 암남동)
정말임(해운대구 좌동)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윤은혜(사하구 신평동)

■ 기존가입 엽서 당첨자(10명)

김세형(남구 대연1동)
김효정(동구 범일2동)
손주목(남구 문현동)
이준엽(남구 감만1동)
여선희(남구 문현동)
전임순(남구 감만2동)
정규나(금정구 장전2동)
차상년(영도구 청학2동)
최미경(금정구 장전2동)
하정모(금정구 장전2동)

오페라 '라보엠'

부산에서 부산의 성악가들이 모여 푸치니의 라보엠을 공연하니 부산국제영화제로 불기 시작한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 즐거운 사건이었다. 무제타 왈츠, 내 이름은 미미 등 주옥같은 표현에 진정으로 어울리는 그 유명한 아리아들을 무대 위에서 연기와 함께 감상할 수 있었던 올해 2007년 겨울은 행복했다. 부산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부산 오페라 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기를.

-진영조(범일동)

부산시립합창단 제124회 정기연주회

무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자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 힘차게 진행되면서 브라스콰이어 연주는 우리 몸과 마음을 흥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어깨를 들썩거리고 손뼉을 치게 하고 옆 사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음악이 주는 놀라운 선물을 가득 안고 몸은 물렁물렁 부드러워져 집으로 돌아왔다.

-최현구(용호동)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숨을 멎게 하고, 흥을 돋우고, 추임새를 놓게 하는 깊은 피리소리, 옛 소리를 기본으로 삼아, 새로운 소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 사람의 숲에서 대 바람 소리를 듣다.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지고 오는지 미담이에는 가끔 그늘지다' 는 신석정님 처럼 멋진 표현은 못하지만, 명인에 명곡의 길을 어떻게 물었더니 굽고 깊은 피리 소리로 명쾌한 답을 주신다. 멋진 소리에... 눈이 밝게 뜨이고, 귀가 시원하게 툅고,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넉넉해져서 참 좋다.

-이선애(주례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 22개지구 5조 7,300억 투자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WELCOME TO "HANULCHE"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야경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코오롱
하늘채로
구경하세요**

- 하늘채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방문사은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1, 1만 3천여평의 대단지를 골프장 카트로 구경하러
- 이벤트2, 불꽃에 물든 자연의 황면 - 하늘채에 펼쳐집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품격이 있습니다

전세대 3bay·4bay구조	개방감 및 채광은 물론 우수한 환기까지, 광폭발코니 적용으로 공간활용을 자유롭게.
컬러테라피 아파트	국내 최초로 컬러테라피 개념을 주거에 도입, 입주가구별 맞춤 컬러상담 주거공간 연출
최상층 전세대 다락방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하여 우수한 전망과 가치를 드립니다.
전세대 남향 배치	하늘채는 전세대 남향(남동, 남서향)배치로 일조권과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테마공원형 단지설계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첨단건설기술로 단지 전체를 공원화 하였습니다.



코오롱건설(주)

33평형 / 33평형A형 / 46평형 / 56평형 총 712세대

문의 051)703-1003

*상기 이미지는 2007년 4월 20일 코오롱하늘채를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가로등은 이미지 처리한것입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008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2008. 1. 2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크리스티안 슐츠** 바이올린 **아이만 무사하자예바** 첼로 **여미혜**

브람스 _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슈베르트 _ 교향곡 제8번 '미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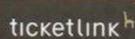
슈트라우스 _ '박쥐' 서곡, '도나우' 왈츠, '들뜬 마음', '크라펜 숲' 폴카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 무료셔틀버스 운행

2008년 부산문화회관 주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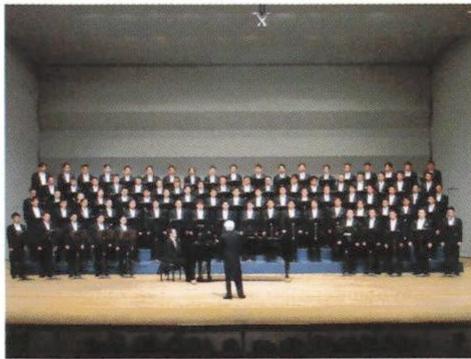
>>웰빙콘서트

2007년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웰빙콘서트'는 평소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마련한 기획프로그램으로, 2007년 한 해동안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총 7회의 콘서트를 가졌다. 2008년은 3월 6일 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총 7회가 열린다. 올해는 공연장소를 옮겨 을숙도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창작국악관현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악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열린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는 매년 각 시도의 실력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출연,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작곡들을 들려주고 있다. 2008년에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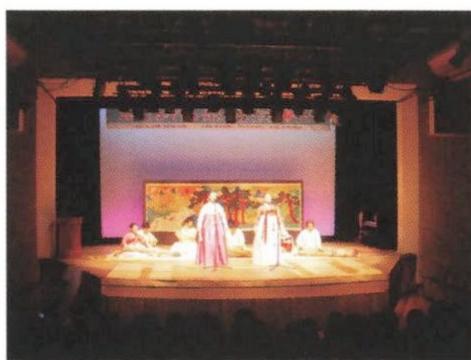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예술단 교류공연

2001년 시작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예술단 교류공연'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3개 예술단의 교류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 진주시립합창단이 참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 연주로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혼성합창음악의 매력을 선사했는데, 2008년에도 8월말 화합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



>>부산합창제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참가, 부산 합창음악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부산합창제는 지난 1985년 부산의 합창음악 활성화와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첫 무대를 가진 이후 매년 가을 열리고 있다. 22회를 맞는 올해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진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무대는 지난 1992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흥겨운 우리한마당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국악과 전통무용 뿐 아니라 클래식,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딱딱한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08년은 부산시립예술단이 주 공연무대인 부산문화회관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하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평소 공연장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특별공연으로, 특히 수학능력평가시험을 마친 고 3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립극단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007년 정기공연에서 사랑받았던 '미스터옹 VS 미스터옹'으로, 시립무용단은 12월 16일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술무대

부산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열이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술무대'는 지난 2000년 처음 공연을 가진 이후 관람객이 늘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문화상품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공연장을 해운대와 동래문화회관으로 옮겨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산문화대학

부산문화대학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인 감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처음 문을 열었다.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 및 안무자, 연출자 등 최고의 강사진이 참가하여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21일 첫 수료식을 가진 부산문화대학은 오는 4월 2기 개강을 앞두고 2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민예능교실

공연 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시민예능교실은 현재 시민국악교실,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한국춤교실, 여름 연극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시민클래식 교실을 새롭게 기획, 클래식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강좌를 열 계획이다. 제1기 시민클래식교실은 강의와 공연을 함께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특별혜택

혜택 해외여행 경비의 3%할인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부산문화회관 전용상담전화 051-442-1270



일본
어천여행

부산야경과 함께 북큐슈 온천여행 4일

439,000원~

포함내용

쾌속선 왕복, 기사, 가이드팁, 온천욕, 식사, 구마모토성, 푸드펠 와인공장, 아소산, 원숭이공연, 히가시시야야 폭포, 여행자보험

초고속선 코비와 함께 북큐슈 온천여행 3일

48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선내1박, 온천욕, 식사, 모모치 해변, 천만궁, 지옥온천, 유노하나, 아소산, 쿠마모토성 관광, 여행자보험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축제 북해도 관광 온천 3일

72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온천욕, 식사, 민속박물관, 지옥계곡, 쇼와신잔, 유람선 탑승, 오타루, 구도청사, 여행자보험

가족
휴양여행

푸켓 직항 보트라군 리조트 4일

7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식사(특식3회), 기사 & 가이드 팁, 왕차롱사원, 피피섬 자유시간, 팜아만 자유시간, 코끼리트래킹, 여행자보험

하이난 직항 하이난 캐릭터스 리조트 4일

84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공항주차권, 기사 가이드 팁, 리조트 자유시간, 원숭이섬 (케이블카), 애니월드쇼, 녹회두 관광, 여행자보험

가족휴양1번지 사이판 월드리조트 6일

1,3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전일호텔식사(특식1회), 오션래프팅 체험, 비치백증정, 마나가하섬, 시내관광, 리조트 자유시간

가족
테마파크여행

일본속 네덜란드 북큐슈/하우스텐보스 4일

52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왕복(선내1박), 부두세, 식사, 온천욕, 하우스텐보스 1일자유, 쿠마모토 성, 아소활화산, 원숭이쇼 관람, 여행자 보험

만화같은 세상 홍콩/디즈니랜드 3일

6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식사 (특식2식), 디즈니랜드 1일관광, 웅타이신 사원, 스타의 거리 관광, 여행자 보험

영화속 세상으로~ 교토/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나라 4일

8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기사 가이드팁, 쿠마모토 성, 오사카 성, 오사카 시내, 나라사슴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1일 패스권, 여행자보험

자유
여행

상하이 자유여행 4일

329,000원~

추천일정

인민공원-상해박물관-난징루-외탄-해양수족관-동방명주탑-예원-신천지 등
포함사항: 왕복항공, 3성급호텔 3박, 가이드북, 멀티팩, 면세점할인 쿠폰, 샌딩

후쿠오카 자유여행 3일 (료칸1박)

459,000원~

추천일정

하카다역-텐진-태재부천만궁-큐슈온센 무라-베이사이드플레이스-마린월드
포함사항: 코비왕복 승선료, 료칸1박, 비즈니스급 호텔1박, 샌딩

도쿄 자유여행 4일

609,000원~

추천일정

도쿄시내관광-시부야-긴자거리-전자상가-레인보우브릿지-아사쿠사-우에노
포함사항: 왕복항공, 비즈니스급 호텔 3일, 가이드북, 면세점 5% 할인권, 샌딩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부산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 무료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지점)

출발시간 : 오후 7시(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늙은 부부이야기

10% 할인



- ▶ 날짜 : 2008. 2. 22(금)~3. 16(일)
- ▶ 시간 : 평일 오후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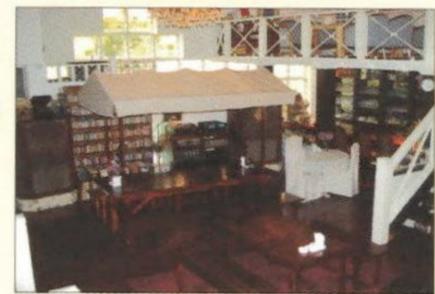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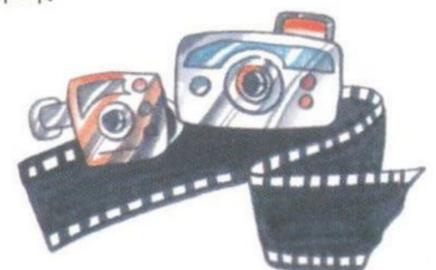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 ·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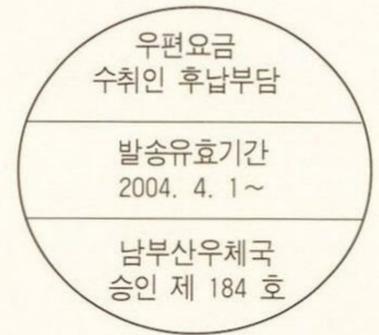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20 2008년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42번가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첫 내한

42ND STREET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8. 3. 13 (목) ~ 23 (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문화회관, (주)AN시티 예매 1644-4484 AN티켓·인터파크

티켓오픈!! 2008년 1월 10일(목) 오후 2시



기다림! 흥분! 기대! 2008년 3월... 기다리던 쇼가 옵니다!!

브로드웨이 스케일로 완성된 최고의 버라이어티 뮤지컬!!

예·매·수·료·없·는
가·장·플·은·자·리

AN티켓

을 체크하세요!!

戊子年

傳統의 歌·舞·樂
3色 音樂會



연주곡목

- 宮中音樂 合奏 [함녕지곡]
- 樂이 있는 舞 [宮中呈才 - 춘앵전(春鶯囀)]
- 樂이 있는 歌 [傳統歌曲 - 편락, 편수, 태평가]
- 歌와 歌 [박초월제 수궁가, 정정렬제 춘향가]
- 民俗樂 合奏 [시나위]

2008. **1.23.**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25-813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ticketlink  콜센터 1588-7890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